



우수콘텐츠잡지  
2023

ART BUSAN MONTHLY

# 예술부산

2025·8 VOL.242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2025 제16회

세계 정상 교향악단과 앙상블의 클래식 음악축제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클래식 소울  
Soul in Classics

9.2.(화)~9.23.(화)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 콘서트 1  
Main Concert 1

개막콘서트  
Opening Concert

2025. 9. 2.(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iano

알렉산더 야코블레프  
Alexander Yakovlev



Conductor

구스타보 리베로 베버  
Gustavo Rivero Weber



Orchestra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BMIMF Festival Orchestra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후원 · 협찬 BNK 부산은행 부산문화재단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 MBC 부산일보사 KNN 국제신문

poem (주)보은금속 IFC (주)아이에프씨 신통 통증클리닉

예매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1588-7890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Tel. (051)516-8293~4 Fax. (051)513-8252 E-mail. bmimf@hanmail.net

www.bmimf.co.kr

# 오충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파이프 오르간인 빈야드 -

## PROGRAM

하순봉

Soon-Bong Ha

교향곡 제1번 '釜山' \*부산심포니 위촉 세계초연(2025)

Symphony No.1 'Busan' \* World Premiere, commissioned by BSO

생상스

C. Saint-Saëns

교향곡 제3번 c단조 작품78 '오르간'

Symphony No.3 in c minor, Op.78 'Organ'



예술감독  
오충근



오르간  
신동일



작곡  
하순봉

일시 2025.9.2 Tue. 7:30pm

장소 부산콘서트홀

주최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특별후원 SHINSEGAE 동성모터스 BNIC 부산은행 부산경대대학교 (주)와인테크놀로지 농시원인재 남산정 요양병원 B&C PVD COAT(주)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입장권 VIP석 7만원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S-A석 학생 30% 할인) 예매처 부산콘서트홀 NOL Interpark YES24 문의 051-621-4577 www.bso21.com

\*본 공연은 2025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원 제32회 부산문학상

창작지원금  
3,000만원

대 상(5명) 창작지원금 각 500만원  
우수상(5명) 창작지원금 각 100만원

**접수대상** | 2023. 8. 5. ~ 2025. 8. 5. 중에 발행한作品集  
**대 상** : 부산광역시문인협회 가입 10년 이상의 부산 거주자로  
작품집 3권 이상(해당 기간 내 1권 이상 발간 포함) 발간한 자  
**우수상** : 부산광역시문인협회 가입 2년 이상 10년 미만의  
부산 거주자로 작품집 1권 이상을 해당 기간 내 발간한 자

**접수기간** | 2025. 7. 10. ~ 8. 1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8월 12일 소인까지 인정)

**심 사** | 부산문학상 심사규정에 의해 심사

**접 수 처** |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대연3동)  
부산예술회관 303호  
(사)부산광역시문인협회 사무처 051-632-5888  
※ 신청서는 (사)부산광역시문인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시 상 식** | 2025년 9월 5일(금)



# 2025 D.FESTA 소극장축제 in 부산

2025.8.15.(금)-24.(일)

공간소극장, 바다소극장, 하늘바람소극장

2025

The 9th Busan Port Ocean Song Festival

# 제9회 부산항 해양가요제

■ 일시 : 2025. 9. 28 (일) 오후 2시

■ 장소 : 용두산공원 광장 특설무대

■ 참가자격 : 부산관련 노래만 참가 가능

- 제목이나 가사에 기록
- 창작곡, 기성곡 제한없음
- 성별, 연령 제한없음
- 신인가수, 기성가수 제한없음
- 동일곡은 1곡만 본선 진출

■ 참가비 : 없음

■ 접수기간 : 9월 13일 (토)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이름 곡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시 상 내 역


- |                                   |                           |
|-----------------------------------|---------------------------|
| ○ 대상 1명 - 상금 200만원 상장, 트로피, 가수인증서 | ○ 동상 1명 - 상금 20만원 상장, 트로피 |
| ○ 금상 1명 - 상금 50만원 상장, 트로피, 가수인증서  | ○ 인기상 1명 - 상장, 트로피        |
| ○ 은상 1명 - 상금 30만원 상장, 트로피, 가수인증서  | ○ 부산홍보대사상 7명 - 트로피        |



■ 예 선 : 2025. 9. 14(일) 오후 2시

■ 장 소 :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 문 의 : 051-646-7343

■ 추진위원장 나성 : 010-3898-4322

| 주최/주관: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부산연예협회

| 후원:  부산광역시 PUSAN METROPOLITAN CITY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문화가있는날 홍수민 도예전 (법고창신) (3층,4층전시장) 051)631-1377	2 양상블 리플리히 제4회 연주회 010-9413-8676, 19시  문화가있는날 홍수민 도예전 (법고창신) (3층,4층전시장) 051)631-1377
3 문화가있는날 홍수민 도예전 (법고창신) (3층,4층전시장) 051)631-1377	4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 30분	5 팡팡노래교실(1층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 교실(4층연습실) 19시-20시30분	6 김현숙 가야금 독주회 010-5361-2006, 19시30분  즐거운 가야금 교실 (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고강구(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가곡교실(2층연습실) 14시30분-16시 너도나도 방송댄스 (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점심버스킹	7 새김배울터 모짜르트 마술피리 010-8373-9520, 19시30분  댄스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 교실 심화반 (4층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 기초반 (4층연습실) 16시-17시50분 사천아카데미 (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02)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8 부산문인협회 제29회 한국해양문화제 051)632-5888, 13시	9 부산국악협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제31회 부산국악대전 9시
10 문화가있는날 홍수민 도예전 (법고창신) (3층,4층전시장) 051)631-1377	11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 30분	12 팡팡노래교실(1층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 교실(4층연습실) 19시-20시30분	13 즐거운 가야금 교실 (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고강구(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가곡교실(2층연습실) 14시30분-16시 너도나도 방송댄스 (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14 댄스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 교실 심화반 (4층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 기초반 (4층연습실) 16시-17시50분 사천아카데미 (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02)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15	16
17	18 부산창조미술협회 영호남교류전 (3층,4층전시장) 010-5651-7499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 30분	19 부산창조미술협회 영호남교류전 (3층,4층전시장) 010-5651-7499  팡팡노래교실(1층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 교실(4층연습실) 19시-20시30분	20 부산창조미술협회 영호남교류전(3층,4층전시장) 010-5651-7499  즐거운 가야금 교실 (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고강구(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가곡교실(2층연습실) 14시30분-16시 너도나도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점심버스킹	21 부산창조미술협회 영호남교류전 (3층,4층전시장) 010-5651-7499  댄스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 교실 심화반 (4층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 기초반 (4층연습실) 16시-17시50분 사천아카데미 (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02)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2 부산창조미술협회 영호남교류전 (3층,4층전시장) 010-5651-7499  부산예술회관 기획공연 백광무용단 051)631-1377, 19시30분	23 창명예술협회 전국 청소년예술음악콩쿨 010-6768-5315, 9시  부산창조미술협회 영호남교류전 (3층,4층전시장) 010-5651-7499
24 태평무전수관 유네스코강성영총교육 원 태평무 010-4780-0132, 16시  부산창조미술협회영호남교류전 (3층,4층전시장) 010-5651-7499	25 문화가 있는 날 부산남사회포토클럽 (부산 시계의 미학) (3층,4층전시장) 051)631-1377	26 문화가 있는 날 부산남사회포토클럽 (부산 시계의 미학) (3층,4층전시장) 051)631-1377  팡팡노래교실(1층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 교실(4층연습실) 19시-20시30분	27 문화가 있는 날 공연무렵 (보이는 라 디오로 만드는 뮤지컬쇼 전파해! 무 북) 051)631-1377, 19시  문화가 있는 날 부산남사회포토클럽 (부산 시계의 미학) (3층,4층전시장) 051)631-1377  즐거운 가야금 교실(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고강구(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가곡교실(2층연습실) 14시30분-16시 너도나도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점심버스킹	28 부산예술회관 기획공연 사치영무용단 051)631-1377, 19시  문화가 있는 날 부산남사회포토클럽 (부산 시계의 미학)(3층,4층전시장) 051)631-1377  댄스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 교실 심화반 (4층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 기초반 (4층연습실) 16시-17시50분 사천아카데미 (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02)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9 문화가 있는 날 부산남사회포토클럽 (부산 시계의 미학) (3층,4층전시장) 051)631-1377	30 중앙예술기획사 제73회 중앙음악전국콩쿨 010-4864-5263, 9시  문화가 있는 날 부산남사회포토클럽 (부산 시계의 미학) (3층,4층전시장) 051)631-1377
31 경향아트 경향음악공쿠르 010-3580-7076, 9시  문화가 있는 날 부산남사회포토클럽 (부산 시계의 미학)(3층,4층전시장) 051)631-1377	31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 30분					



# ART BUSAN MONTHLY VOL.242

## 2025 AUGUST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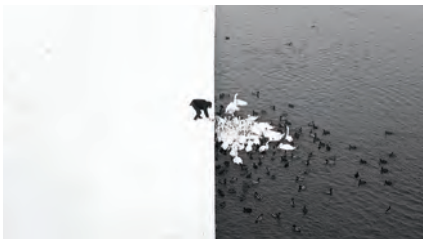
### CONTENTS

#### 권두칼럼

10 기업이 예술을 마주할 때, 도전은 깊어진다. \_ 고진호

#### 예서제서

- 12 제14회 젊음의 축제
- 18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아이디발레단 (ESSENTIAL)
- 20 제36회 부산사진대전
- 22 2025 제22회 부산국제디자인제
- 24 부산박물관 -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 26 KF아세안문화원 - 차양과 둥근 모서리
- 28 2025 제1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 30 제3회 부산미술원로작가회 정기발표전
- 32 2025 부산수채화협회 동행전
- 33 제20회 부산여성서화작가회전
- 34 국립해양박물관 - 디지털 오션: 위기의 바다, 우리의 실천
- 35 제21회 광대연극제
- 36 박주현 개인전 '도구의 기억 ; 소환'
- 37 황수로 박사, 부산예총에 예술문화 발전기금 전달
- 38 인사이트 | 돌아와요~ 부산으로~



「A Man Feeding Swans in the Snow」

#### 표지\_마르친 리체크Marcin Ryzek

마르친 리체크(1982)는 폴란드 출신 사진작가로 「눈 속에서 백조에게 먹이를 주는 남자 A Man Feeding Swans in the Snow」작품으로 2013년 국제순수예술사진상에서 1등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허핑턴포스트가 선정한 올해 가장 인상적인 사진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 포토에세이

42 배롱나무 \_ 우경호

### 수필의 뜰

46 유배의 뒤안 \_ 송명하

### 인물포커스

50 작곡가 백현주 \_ 백근영

### 에인탐방

52 조각가 강이수 \_ 정혜주

### 예술가열전 235

54 시조시인 주강식 \_ 박준영

### 손으로 쓴 문학

58 휴머니스트 \_ 최성아

### 들어다보기

60 문학/ 서관호의 동시조집 『뿔성부른 나무들』 읽기 \_ 정희경

62 음악/ 앙상블 누에보 \_ 김윤선

64 미술/ 힐마 아프 클린트: '적절한 소환' \_ 백근영

68 영화/ 2025 국제해양영화제 폐막작 <바다호랑이> \_ 박준영

### 기획연재

70 건축과 서예XIV - 충절의 역사와 서체가 만나는 공간 반송 삼절사 \_ 이현주

74 활력 잃어가는 부산..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 캐기 사업’에 사활 걸어보자” \_ 심수화

78 예총 전시·공연 뉴스

81 신간 안내

82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5년 8월 통권 242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라-01255)

발행일\_ 2025년 7월 22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옥(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혜숙(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기자\_ 박준영, 정혜주 객원기자\_ 백근영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종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예술을 마주할 때, 도전은 깊어진다.

글 \_ 고진호 (주)퓨트르닉 회장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인간과 기계, 물리 공간과 디지털 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기존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로 대체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업은 생존을 넘어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삶과 기업 운영에 있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바로 '도전과 혁신'입니다. 될 때까지 해내겠다는 집념,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은 지금껏 나를 움직여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도전은 진정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도전과 혁신의 힘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예술 속에 있습니다.

예술은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형식의 파괴, 기존 질서의 전복을 통해 스스로를 진화시켜 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새로운 시각과 기법으로 전통적 미술을 혁신

했고, 피카소는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형식을 변화시키며 예술 자체를 실험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마르셀 뒤샹은 일상의 오브제를 미술관에 들여놓으며 예술의 개념을 전복했고, 제임스 조이스는 전통 서사를 해체해 문학의 지형을 뒤바꿨습니다. 예술은 언제나 정형을 넘어 낯선 것을 수용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온 '도전의 실천'이자 '창의성의 본보기'였습니다.

예술의 본질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과 자본이 풍부한 조직이라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관점에 대한 거부감, 감정 없는 소통이 존재한다면 진정한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기업도 '무엇을 만들 것인가'보다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푸트로닉은 1993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을 선도하는 리더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일인일기(一人一技)한 사람이 하나의 기술(技能을 익힘)를 이야기하며 도전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돌봄, 노동시장, 주거,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

고 있습니다. 푸트로닉은 이러한 사회적 과제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 내 출산 장려와 교육기관의 인재 육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인구 감소와 인력 공급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술문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지역 예술문화의 아름다움을 지켜가기 위한 다양한 예술 후원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모든 공정에서 탄소 제로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도전과 혁신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시장 변화, 기술 진화, 소비자 요구의 고도화는 기업을 매일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자본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 사고방식을 넘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예술적 감각과 창의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각은 예술과의 만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기업에 새로운 감각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정관념을 넘어서고, 다양성을 수용하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것이 바로 기업이 예술을 마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넘어 진정한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술의 본질을 배워야 합니다. 기업이 예술을 마주하는 순간, 도전은 깊어지고, 혁신은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 제 14 회 젊음의 축제 2025 YOUTH FESTIVAL



김여림



J&J



# 축세

2025. 7. 5.(토)-7. 6.(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주최 부산예술회관 부산예술회관  
후원 K 국재신문 KBS 부산방송  
부산 MBC KNN  
특별후원 BNK 부산은행



체스싱어즈

# 이그나이트:IGNITE 대상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날, 부산의 청년 예술가들은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술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쳤다.

부산예총(회장 오수연)과 부산예술회관이 주최한 '제14회 젊음의축제'는 점화·발화의 첫 단계를 의미하는 '이그나이트:ignite'를 주제로, 청년 예술가들의 가능성과 에너지가 예술로 점화되는 순간을 담아냈다. 총 28개 팀이 참가했으며, 그중 22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번 경연에는 대중가요, 힙합, 뮤지컬, 팝페라, 국악, 현대무용, 스트리트 댄스, 퓨전 EDM, 클래식 혼성 중창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부산 청년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색깔과 예술적 성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심사는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을 비롯해 김인숙 수석부회장, 권성은 부회장(부산음악협회 회장), KBS 부산방송 총국 이경민 편성부장, 부산경남대표방송(KNN) 김성기 보도국장, 부산일보 김희돈 부장, 국제신문 김현주 부장이 맡았다. 독창성, 전문성, 발전성, 예술성의 4가지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창의성과 작품의 완성도까지 고려해 예술로서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대상은 [리온트리오]가 차지했다. 이들은 「Fly me to the moon」과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3악장」을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드럼(케스트)의 협연으로 선보였다. 부드러운 선율로 시작된 연주는 점차 속도와 에너지를 더하며 테크닉과 표현력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 심사위원과 관객의 감탄을 자아냈다.

## 금상



친친탱고\_금상



조선버전\_금상

금상은 월드뮤직 팀 [친친탱고]와 창작국악팀 [조선버전]이 수상했다. 친친탱고는 '부산'을 주제로 한 창작곡 「뭇」을 선보이며, 반도네온의 독특한 음색으로 바다의 정서를 그려냈다. 조선버전은 한국 고유의 정서가 담긴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독무」를 연주하며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 은상



타는 목마름으로 은상



Hayoung Dance Project\_은상



라운첼로 은상





# 동상

은상은 [타는 목마름으로], [Hayoung Dance Project], [라온첼로]가 각각 수상했다. 창작 한국무용의 뛰어난 기술과 구성력, 원초적인 감각과 움직임으로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였고, 클래식과 국악을 융합하고 영상미와 연출이 돋보이는 무대를 통해 주목받았다.

동상은 [진행], [OH], [듀하모니], [짜쓰리], [루미너스 중창단], [틴앤지듀오] 6팀이 선정됐다. 참가상은 김예림, [꽃단지], [J&], [뮤지컬 프로젝트팀 아이엠], [체스 싱어즈], [무궁무진영], [할러퀸즈], 박선혜, 김영근, [용연동 라이브]에게 돌아갔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상

장과 대상은 300만원, 금상 2팀에 각 200만원, 은상 3팀에 각 100만원, 동상 6팀에 각 50만원, 참가상 10팀에 각각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은 “이번 경연은 심사위원들의 고심이 많았고, 아주 근소한 점수 차이로 순위가 나뉘었다”라고 심사평을 전하며, “올해는 총상금이 1,600만 원으로 증액됐고, 내년에는 더욱 다채로운 기획과 행사가 예정된 만큼 많은 젊은 예술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편집실

##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아이디발레단 ESSENTIAL

2025. 6. 25.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2025년 6월 25일,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산예술회관 무대에 오른 [부산아이디발레단]의 공연 <Essential 에센셜>은 예술의 본질에 대한 탐구였다. 장식적 요소를 덜어내고 무용수의 몸 그 자체에 집중한 이번 무대는, '예술의 고급 작업은 단순화'라는 생각을 몸으로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에센셜'이라는 제목 그대로 무용 안무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단순화, 무용수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와 멋이 표현된 공연이었다.

<에센셜>은 사이버 감성과 팝 컬처, 하이패션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된 총 8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졌다. 음악은 조비 탈봇, 화이트 스트라이프, 엘레나 캐츠웨린 등 다채로운 감성을 품은 작곡가들의 곡들로 채워졌고, 정형화된 발레의 움직임을 해체하는 과정을 통해 무용수 개개인의 움직임과 에너지, 성별을 넘는 조화를 드러냈다. 무대는 초반부터 강렬했다. 조비 탈봇의 음악과 함께 남녀 듀엣의 밀도 있는 동작으로 시작된 공연은 분절적 움직임과 웨이브, 정



제된 클래식 발레의 대조를 오가며 감각을 자극했다. 이어진 장면들에서는 각 무용수의 신체적 특성과 스타일이 강조되었고, 특히 여성 무용수의 무음 솔로 파트에서는 절제된 고요함 속에서 섬세한 감정이 입체적으로 피어났다. 마지막 군무는 남녀, 개인과 집단, 선과 면의 구도를 유기적으로 엮어내며 시각적 착시를 일으킬 정도의 밀도 높은 군무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무용수들이 '군무' 안에서도 각자의 고유한 존재감을 유지하며, 동시에 하나의 이미지로 융화되었다는 점이다. 단순한 대칭이나 반복이 아닌, 불규칙성과 개성, 다채로운 조합을 통해 만들어낸 이 조화는 오늘날 예술이 지향해야 할 다양성과 존중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다. 이번 공연을 선보인 부산아이디발레단은 창작발레와 실험적인 무대 구성으로 지역 무용계에 신선한 흐름을 불어

넣고 있는 단체다. 지난 해 부산무용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에센셜>은, 단순히 예술적 실험을 넘어 관객과 소통하며 무용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주호 대표와 김혜지 부예술감독을 중심으로, 국립발레단·해의 발레단 출신 단원들과 젊은 무용수들이 함께하며 기획·안무·무대 구성까지 스스로 소화하고 있다.

무용의 본질을 다시 묻고, 몸의 언어로 답하는 공연 <에센셜>. 무대 위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로 관객에게 닿았다. 무용을 낯설게 느껴온 이들에게는 발레의 새로운 얼굴을, 무용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그 본질의 아름다움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글\_박준영



일상을 포착하는 찰나의 예술  
**제36회 부산사진대전**



2025. 7. 22. ~ 25.  
부산시청 제1·2·3전시실

‘제36회 부산사진대전’은 삶 속의 한 장면 한 장면 들을 탁월한 시선으로 포착한 작품들을 통해, 사진예술의 힘과 깊이를 다시금 보여준다.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광역시청 제1·2·3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가 주최·주관하고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 등이 후원하는 지역 대표 사진예술제다.

올해는 총 476점이 출품되어 공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선, 입선 등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올해 대상은 성현미 작가의 「window」가 차지했다. 작품은 기차 창문 틈 사이로 각기 다른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마스크를 쓴 남성, 창밖을 응시하는 여성, 정면을 응시하는 남성, 그리고 어둠 속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눈빛

까지. 복잡한 감정의 교차와 다채로운 인물들의 시선을 동시에 담아낸 구성이 인상적이다. 이 한 컷의 사진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최우수상에는 최길임 작가의 「파안대소」가 선정되었다. 전통 복식을 갖춘 노년 여성의 얼굴에 번지는 환한 웃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다. 몇 개 남지 않은 치아, 깊게 패인 주름 위로 빛나는 생의 긍정이 보는 이에게 웃음을 건넨다. 웃음은 어떤 연극보다도 강한 전달력을 지니고, 어떤 시보다도 깊다. 사진은 노년의 삶에 깃든 생명력과 인간미를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했다.



1 대상 성현미\_window 2 최우수상 최길임\_파안대소  
3 우수상 한미숙\_숨결 위로 날다 4 우수상 김지민\_Bravo, My Life

우수상은 한미숙 작가의 「숨결 위로 날다」에게 돌아갔다. 설원 위를 질주하는 호랑이 떼와 그들 위로 날아오르는 닭의 모습은, 자연 속 감도는 긴장감과 극적인 생존의 순간을 담아낸다. 눈발이 흩날리는 배경과 호랑이들의 역동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 위로 날아오르는 생명의 비상, 모든 요소가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진 듯 조화를 이룬다.

제36회 부산사진대전은 단지 예술적 성취에 머물지 않았다. 단 사진과 포트폴리오 부문을 통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고, 삶의 단면과 시대의 찰나를 포착한 작품들이 관객에게 큰 울림을 전했다. '사진'이라는 매체는 시간을 정지시키되,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감정과 이야기를 오롯이 전한다. 프레임 안에 담긴 현실은 때로는 시보다 더 시적이고, 소설보다 더 극적이다. 또한 이번 전시는 사진 예술의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초대·추천작가를 포함해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도 돋보였고, 작품 속에는 개인의 시선과 사회적 성찰이 교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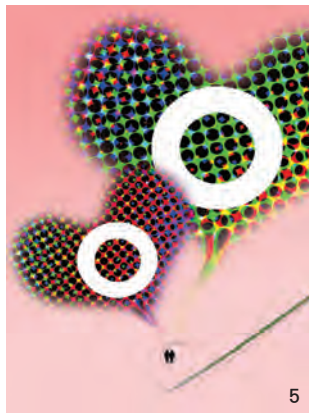
찰나를 기록하는 일이 곧 삶을 기억하는 일이라면, 이번 부산사진대전은 우리 모두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 같은 전시였다. 빛과 시선이 교차하는 그 한 컷의 사진 안에, 우리는 누군가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또 다른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었다.

문의\_051)631-4111 / 편집실

2025 제22회 부산국제미디어인제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 및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에서 후원하는 '제22회 부산국제미디어인제' (운영위원장 최장락, 김종대)가 9월 8일부터 14일까지 부산시청 제1·2·3전시실에서 열린다. 주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혼가족 행복UP'展이다.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가족의 행복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그래픽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적 관점으로 들여다본다.

일본의 『주간현대』의 비즈니스 매거진이 앞으로 100년 뒤 한국, 중국, 일본의 인구가 지금의 3분의 1로 토막 난다고 예측했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보다 먼저 저출생 고령화를 겪은 나라로, 최근 들어 출생률 감소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2023년 1.20이었던 출생률은 2024년에는 1.15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치를 한국에 대입한 결과, 2120년 한국 인구는 1,375만 명으로 떨어졌다. 일본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도 14억 인구가 3억 5,000만 명 내외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것은 국가의 소멸 수준이다. 한국의 출생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이유는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및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 단체에서 꾸준한 계몽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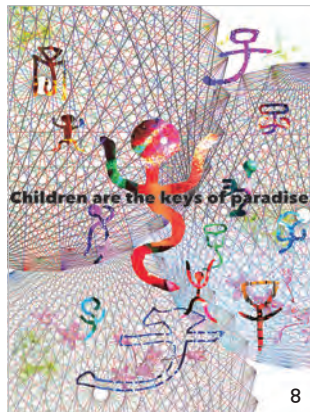


올해는 부산 및 전국 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교수, 디자이너 105명, 중국·일본·타이완·미국·루마니아·헝가리·폴란드·인도네시아·멕시코·이란·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외국 작가 70명을 초대했다. 12개국 175명 작가의 풍성한 작품 전시와 더불어 연계 행사로 부산국제디자인제 박사급 회원과 예술고 학생 80여 명이 함께한 디자인 창작 캠프의 결과물인 '학생디자인체험전'도 함께 열린다. 디자인 세미나는 9월 18일(목) 오후 4시에 부산시의회 회의실(예정)에서 개최한다.

전시관계자는 “저출생 위기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전 세대와 함께하는 시민 참여 디자인 계몽 확대가 필요하다. 디자이너가 참여하여 저출생 위기에 대한 사회 혁신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시민과 함께 계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색다른 저출생 위기 이미지가 소통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의\_010-3862-8011 / 편집실

- 1 한국\_권경철 2 한국\_김용모 3 한국\_김종원 4 한국\_민병일
- 5 한국\_이원우 6 한국\_이은주 7 한국\_이하니
- 8 Japan\_Murakami Sachiko 9 China\_Han Dong
- 10 Taiwan\_Liang Hsin Yi 11 Mexico\_LILIA LUJÁN
- 12 Iran\_Emran Atahi 13 Australia\_Jeffrey Janet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혼가족 행복UP'展



##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광복의 시간, 그날을 걷다: 부산의 독립운동과 범어사’

2025. 6. 21. ~ 8. 15.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산박물관(관장 정은우)은 특별기획전 ‘광복의 시간, 그날을 걷다: 부산의 독립운동과 범어사’를 6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총 56일간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오랫동안 역사적 조명을 받지 못했던 부산의 독립운동사와 불교계의 항일 정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뜻깊은 시도이다.

부산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 범어사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염원하며 민족정신을 지키고자 한 불교계의 중심지였다. 그 안에서 스님들은 단지 수행자에 머물지 않고 시대의 부름에 응답한 실천적 주체로 거듭났다. 이번 전시는 그 숨어 있던 역사의 장면들을 발굴하여, 부산 시민은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정신을 전하고자 한다.



용성 대종사 진영, 범어사 성보박물관, 1982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군막사찰에서 선찰 대본산으로'에서는 수행 중심 사찰이자 지역의 대표 사찰로 성장해 온 범어사의 역사적 정체성과 그 기반을 소개한다. 2부 '부산 독립운동의 요람, 범어사'는 불교계 승려들이 어떻게 일제에 맞서 싸웠는지를 중심으로, 범어사 스님들의 독립운동 참여 사례를 조명한다. 3부 '부산의 함성, 대한독립만세'에서는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약과 함께, 동래 만세운동과 같은 대표적인 항일투쟁 사건들을 되짚는다.

전시 유물 또한 주목할 만하다.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 의사 유묵'을 비롯해,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백용성의 유물과 만해 한용운 관련 자료, 외교 독립운동가 서영해의 유품이 소개된다. 최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영해 관련 유물은 해외에서의 독립 외교 활동을 조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범어사의 선찰대본산 승격을 이끈 오성월 스님의 기록도 함께 전시되어, 종교와 애국이 만나는 지점을 진지하게 되새기게 한다.

특별전은 단지 유물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관람객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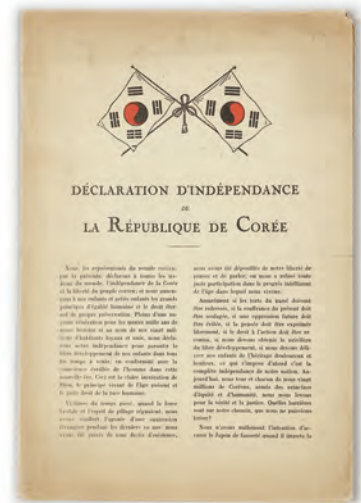
6월 24일에는 대중 역사 강연으로 널리 알려진 최태성 강사가 박물관 대강당에서 '그날을 만든 사람들, 부산의 독립운동가'라는 주제로 특별 초청 강연을 펼쳤다. 7월 25일에는 전시를 기획한 학예연구사의 해설로 진행되는 '큐레이터와 의 역사 나들이'가 열렸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는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와 함께 전시실을 돌아보는 어린이 대상 체험 프로그램 '부기와 함께 전시실 한바퀴'가 진행됐다.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풀어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전시실 입구에는 체험형 포토 리플릿 공간 '부산 올드 프레스(Busan Old Press)'도 마련되어 있다. 관람객은 태극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부산독립신문'

콘셉트의 리플릿으로 출력해 가져갈 수 있어, 독립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또 다른 방식의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오래전의 일이라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금의 자유가 당연한 일상으로 여겨지는 세대에게 보다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체험이 될 것이다.

정은우 부산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다시금 시민들과 나누기 위한 특별한 자리"라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전은 단순한 역사 전시를 넘어, 독립운동이라는 중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부산이 걸어온 길과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자리다. 전시를 통해 우리는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 앞에서, 이 전시가 시민들에게 감동과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의\_051)610-7144 / 편집실



대한민국 독립선언문  
\_국가등록문화유산, 부산박물관, 1929

# 동남아시아의 아르데코와 모더니즘 건축의 오늘 차양과 둥근 모서리

2025. 6. 12. ~ 11. 9. KF아세안문화원

KF아세안문화원(이사장 김기환)은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건축유산과 도시 일상을 주제로 ‘차양과 둥근 모서리: 동남아시아의 아르데코와 모더니즘 건축의 오늘’을 개최했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은 제국주의 시대 자유무역항의 형성과 경제·행정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20세기 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농경사회 지역을 떠나거나 국경을 넘어서 막대한 자본이 몰린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구 유입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건축 유형의 수요가 생겨났고, 건축가들은 강철과 콘크리트, 유리 등 근대화된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건축 언어를 전개해 아르데코와 모더니즘 건축을 탄생시켰다.

## Part 1. 건축의 기억, 기억의 건축

제국주의, 독립, 민주주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다채롭게 형성된 동



- 1 응우옌 유이 안(Nguyen Duy Anh, b.1997, Vietnam) '브리즈 솔레이와 빛의 은닉처(Brise Soleil and the Cache of Light)', 2025, 14분 30초, 3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 2 쇼키 린(Shoki Lin, b.1994, Singapore) '티옹 바루 주민들(Meet the Residents of Tiong Bahru)', 2025, 6분 47초, 2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 3 반 몰리반과 '새로운 크메르 건축'(Vann Molyvann and New Khmer Architecture)



남아시아의 건축을 영화, 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예술로서 접근한다. 도시의 인상을 결정하는 건축은 그 건축물을 향유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서사와 비전, 그리고 복잡다단한 사건을 내포하고 있다. 「브리즈 솔레이와 빛의 은닉처」는 사이공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인 브리즈 솔레이를 매개로 빛, 건축, 디지털 신체 간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실험적 단편영화이다.

### Part 2. 위로부터의 건축, 아래로부터의 건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세안 국가들은 전통 건축의 요소를 모더니즘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냈다. 급격한 산업화는 도심 인구가 폭증하면서 도시민에 의한 자발적 거주지 형성이 이루어졌고, 특히 베트남은 폭이 좁고 높은 세장형 주택이 대거 들어서면서 도시 경관을 완성했다.

반 몰리반 Vann Molyvann(1926~2017)은 캄보디아에서 국가 건축가로 임명되어, 1950~60년대 '새로운 크메르 건축(New Khmer Architecture)'을 완성했다. 이것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 모더니즘 어법을 통한 토착문화의 재해석을 특징으로 한다. '재발견된 전통'의 구현은 서구 모더니즘의 한계를 벗어나 또 다른 '복수의 모더니즘'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영상과 건축모형 및 도면, 사진 아카이브는

반 몰리반의 업적과 시대상을 보여주는 한편, 국가 주도의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가 지닌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 Part 3. 가치의 지속과 확장

현대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의 아르데코와 모더니즘 건축은 행정적·국가유산 차원에서 보존의 대상이 되기에는 역사가 짧고, 유지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애매한 위치에 서 있다. 역사적 가치 판단 문제 외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인구 유입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은 오래된 건축물의 존치에 위협을 가한다.

쇼키 린의 「티옹 바루 주민들」에서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 단지 중 하나인 티옹 바루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실제 거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건축 양식의 특징과 이웃 간의 긴밀한 유대감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한다.

무하마드 우말 악말의 작품에서는 센트럴 마켓의 보존 운동과 재건을 이끈 건축가 및 국가유산 보존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오래된 건물의 적응형 재사용은 지속 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인임을 실증적 사례로써 증명한다.

문의\_051)775-2000 / 편집실

# Soul in Classics 클래식 소울 2025 제16회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세계 정상 교향악단과 앙상블의 클래식 음악 축제인 '2025 제1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가 오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Soul in Classics-클래식 소울'로 고전에 담긴 인간의 내면을 울리는 감정과 이야기에 주목하여, 음악을 통해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는 감동을 전한다. 올해는 부산콘서트홀과 낙동아트센터 등 새롭게 개관한 공연장에서도 무대를 마련해 지역 음악계의 지형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2025. 9. 2. ~ 23.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부산콘서트홀  
낙동아트센터 등

'음악은 영혼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도달한다'라는 플라톤의 말처럼, 음악은 언어를 앞서 우리 마음 깊숙이 스며든다. 이번 음악제는 음악이라는 예술 안에 숨겨진 '영혼의 진동'을 찾아 나서는 여정으로, 각국의 음악가들이 참여해 자신만의 해석으로 고전을 새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개막콘서트는 9월 2일(화) 오후 7시 30분에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공연에는 구스타보 리베로 베버 지휘자와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야코블레프가 협연해, 라흐마니노프의 「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와 차이코프스키의 「Symphony No.6 in B minor, Op.74 "Pathetique"」를 연주한다.

구스타보 리베로 베버는 멕시코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오르케스타 후베닐 우니베르시타리아 에두아르도 마타 Orquesta Juvenil Universitaria Eduardo Mata의 창립자로, 2015년부터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이탈리아 투어의 메라노 음악 주간 Meraner Musikwochen, 에밀리아 로마냐 페스티벌 Emilia Romagna Festival 등 유서 깊은 음악제에서 연주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페인,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왔으며, 올리 무스토넨 Olli Mustonen, 호르헤 루이스 프라츠 Jorge Luis Prats, 로베르토 디아스 Roberto Diaz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협연했다.



지휘  
구스타보 리베로 베버



피아노  
알렉산더 야코블레프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알렉산더 야코블레프는 세계 무대에서 정교하고 진정성 있는 연주로 동시대의 가장 예술적인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유하는 연주자이자 비르투오소' '작곡가의 의도를 깊이 꿰뚫는 자신만의 해석 스타일을 가진 연주자'(El Pais)로 주목받고 있으며, 2006년 로마 쇼팽 콩쿠르에서의 우승을 계기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일본 다카마츠, 신시내티 국제 콩쿠르, 스페인 마드리드 작곡가 콩쿠르 등에서 1위를 차지하고, 총 50개 이상의 수상을 기록했다. 현재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샹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여름-겨울 음악 아카데미 및 페스티벌 'Grand Piano in Palace'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위해 만들어진 오케스트라로, 세계 각국의 연주자들과 다양한 음악을 관객들과 나누고자 설립되었다. 한국,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돼 클래식 음악을 전문으로 한다.

이번 음악제에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최영선), 샤먼펠하모니오케스트라(지휘:차이 민차오), 부산시립교향악단(지휘:

홍석원), KNN방송교향악단(지휘:서희태), 청주시립교향악단(지휘:김경희), 라트비아국립교향악단(지휘:타르모 펠토코스키),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사이먼 래틀경), BMIMF페스티벌챔버오케스트라(지휘:차이 민차오), 다비데 알로냐(바이올린 협연), 벤 킴(피아노 협연), 김재원(바이올린 협연), 루카스 리파이-마예르(트럼펫 협연), 루이사 셀로(플루트 협연), BMIMF브라스앙상블, 친친탱고, 힐링뮤지션 [휴], 감스트링 등이 출현해 총 27개 이상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 9월, 부산은 다시 한번 음악의 도시로 자리매김한다. 일상에 선율이 스며들고 부산 전역에 퍼진 클래식의 향연으로 바람도 낮은음으로 노래해 화음으로 맺힌다. 전 세계 아티스트와 청중이 교감하고, 시대를 넘나드는 클래식이 만든 영혼의 진동으로 가을밤 우리 마음을 깊이 어루만진다. 가장 주목도가 높고 규모가 큰 메인콘서트부터 앙상블 콘서트, 프롬나드콘서트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감상하는 국제영상음악제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함께한다.

문의\_051)516-8293-4 / 편집실

\*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메인콘서트(개막콘서트) : 9. 2.(화) ~ 20.(토) 부산문화회관, 낙동아트센터, 부산콘서트홀
	앙상블콘서트 : 9. 7.(일), 23.(화) 캠퍼스D 고촌홀, 사상문화원
	프롬나드콘서트 : 9. 10.(수) ~ 18.(목)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국제영상음악제 : 8. 8.(금), 9.(토)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아웃리치콘서트 : 9. 17.(수) 부산은행본점 오션홀
	부산음악인 시리즈 : 9. 9.(화) ~ 19.(금) 해운대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콘서트 : 9. 3.(수) 부산문화회관
	부산국제실내악 컴피티션 : 결과발표 7. 7.(월)
	컴포지션(창작곡) 컴피티션 : 결과발표 7. 16.(수)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 9. 14.(일), 20.(토), 21.(일) 부산문화회관
	프린지 콘서트 : 8. 9.(토) ~ 9. 13.(토) 오션컬처팩토리, 스페이스움, 센텀아트홀, BOF아트홀, 무사이
	해외 프린지 콘서트 : 8. 15.(금) ~ 9. 12.(금) 리투아니아, 코서보, 스페인
	심포지움 : 9월 중



세월을 품은 예술, 품격으로 피어나다

## 제3회 부산미술원로작가회 정기발표전

2025. 8. 12. ~ 16. 금련산역갤러리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금련산역갤러리에서 열리는 '제3회 부산미술원로작가회 정기발표전'은 회화 전시에 머무르지 않고, 긴 세월 예술에 헌신해 온 원로 작가들의 삶과 철학이 응축된 자리다. 전시는 75세 이상, 35년 이상 예술 활동을 지속해 온 작가 41명의 작품 50여 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발표전은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원로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개성과 관록을 펼쳐 보인다. 그동안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부산 미술계에 기여해 온 이들은, 오랜 창작의 시간을 살아낸 예술가로서 후배들에게는 본보기로, 시민들에게는 영감의 원천으로 다가선다.

- 1 김문수\_태양을 품은 고향마을의 꽃노래, 유채, 50호F
- 2 강선보\_상황Situation, 유채, 60×80cm
- 3 박대련\_넙, Mixed media on canvas, 50호
- 4 윤종철\_자갈치 여인들, 130×97cm





3



4

강선보의 작품 「상황 Situation」은 커다란 과녁 위에 나체로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다. 다소 생경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주는 이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림 속 인물은 특별한 표정이나 행동이 보이지 않지만, 과녁이라는 배경과 맞물리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점이 관람객의 시선을 오래 붙든다.

다채로운 문양 속에 고향의 정취를 담은 김문수의 「태양을 품은 고향마을의 꽃노래」는 파란색과 흰색만을 사용해 꽃과 나무, 황소와 초가집 등 고향 마을의 풍경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제한된 색채에서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작품 전반에 나타난 다양한 문양과 형상은 전통적 정서와 작가의 상상력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고요한 환상처럼 펼쳐지는 이 풍경은 관람객의 마음에 고향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깊은 그리움을 조용히 일깨운다.

박대련의 「넙」은 한눈에 봐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정형화되지 않은 붉은 숲의 형상은 복잡한 감정을 품은 듯하며, 추상적인 화면 안에 감정의 흐름이 살아 있다. 마치 기억 속

에서 떠오르는 잔상이나 지나간 시간을 되새기게 하는 듯하다. 제목 '넙'처럼, 이 작품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잊고 있던 기억이나 오래된 생각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킨다.

윤종철의 작품 「자갈치 여인들」은 붓질이 강하면서도 자유로운 표현으로 자갈치 시장을 누비는 여인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전한다.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물 묘사는 현장감을 생생히 전달하며, 시장의 정서와 삶의 강인함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특히 여인들의 역동적인 구도는 그 시대 여성들의 삶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인상적인 장면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되며, 원로 작가들의 창작 여정을 엿볼 수 있다. 이번 발표전은 단순한 회고의 의미를 넘어, 현재 진행형인 원로 예술가들의 창작 에너지와 예술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원로 작가들의 고유한 시선과 깊은 예술적 울림이 지역 예술문화의 소중한 자산으로 더욱 널리 공유되고 기억되기를 바란다.

문의\_010-3844-4994 / 편집실



## 2025 부산수채화협회 동행전

2025. 8. 19. ~ 23.

금련산역갤러리

자연의 이상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수채화의 세계를 ‘2025 부산수채화협회 동행전’에서 만난다. 이번 전시는 부산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회원 50여 명과 초청 비회원 작가 150명이 참여해 서로 다른 시선과 개성을 담아낸 다채롭고 풍성한 작품을 선보인다.

통해 생명의 흔적을 섬세하게 담아낸다. 여름과 가을의 경계, 고요히 명상의 길을 걷듯 마음의 평온을 선사한다.

혜음(김동숙)의 「선물」은 단순한 사물이 아닌, 마음과 마음을 잇는 매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붉은 장미와 하얀 구절초, 달콤한 사탕 등 아름답고 따뜻한 요소들이 상자 가득 채워졌다.

‘2025 부산수채화협회 동행전’은 수채화가 지닌 서정성과 깊이를 통해 자연과 감성을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투명한 결과 섬세한 번짐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울림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길 바란다.

문의\_010-8549-3939 / 편집실



무심코 스쳐 지나치던 일상의 풍경이 작가들의 시선을 통해 새로운 숨결로 되살아난다. 정영석의 「통도사 가는 길」은 고요한 숲길을 따라 스며드는 빛을

1 정영석\_통도사 가는 길, 10호

2 혜음(김동숙)\_선물, 45×45cm

# 제20회 부산여성서화작가회전 떡-비단에 물들다

2025. 8. 24. ~ 30. 부산시청 제2·3전시실

서화를 감상하고 소장하는 취미는 고려시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서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순수한 감상의 대상으로 주목받으며 문화적 깊이를 더해갔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서화 작품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이를 함께 감상하고 기록하며 공유하는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서화 취미는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사람들의 서화에 대한 애호는 다양한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아침저녁으로 완상하고 열람하여 잠시도 놓지 않았다' '명품을 파는 자가 있으면 옷을 벗어서라도 바꾸었다' '가을비가 그치던 날, 이 서축을 보며 그 흥취에 고무되었고 늙어서도 와유의 자로로 삼겠다'는 구절들은 서화에 갖는 애정과 열정을 생생히 전해준다.

이처럼 서화문화가 정서 깊이 새겨진 가운데, 제20회 부산여성서화작가회전(회장 김경옥) '떡-비단을 물들다'가 오는 8월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번 전시는 전통적인 기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한국 서화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인다.

보통 수묵화는 종이에, 채색화는 비단에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맑고 투명한 비단에 전통 서화를 담아 떡의 깊이와 비단의 섬세함이 어우러진 새로운 미감을 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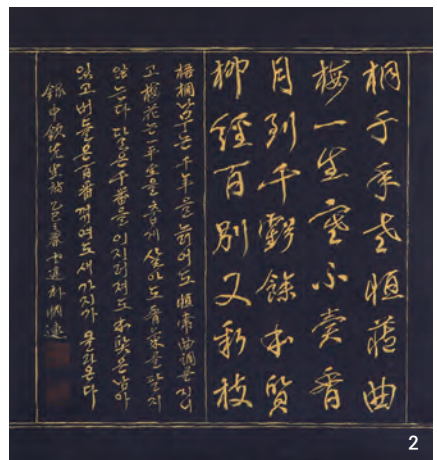
운정 박병련의 「신흙선생시」 '달은 천 번을 이즈러져도 그 본질은 남아 있고, 버들은 백 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돋는다'라는 구절처럼, 전통의 깊이를 품은 채 다시 피어난 예술의 찬란함을 조용히 밝혀가는 작품들 속에서 고요한 감동을 마주하길 바란다.

문의\_010-3940-3060 / 편집실

- 1 서정 이말주\_대길리大吉利
- 2 운정 박병련\_신흙선생시



1



2



## 디지털 기술로 제시한 해양환경에 대한 경각심 디지털 오션: 위기의 바다, 우리의 실천

2025. 4. 29. ~ 10. 12.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관장 김중해)은 4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주제로 테마전시 '디지털 오션: 위기의 바다, 우리의 실천'을 개최했다. 전시는 현재 해양환경의 상황(플라스틱 오염 문제)을 디지털 기술과 인터랙티브<sup>Interactive</sup>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생산-사용-폐기' 흐름을 거꾸로 따라가며 플라스틱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주제로 풀어냈다.

'쓰레기로 만든 나라'는 현대인들이 무심코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의 상태와 경로, 이후 발생하는 문제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과 함께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현 상황의 경각심을 주지시킨다. 해양 쓰레기들은 바다의 해류를 떠돌며 어느새 하나의 인공 '쓰레기 섬'을 이루게 되는데, 북태평양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유령어부'는 많은 해양 생물이 해상에 버려진 낚시줄이나 어망, 통발 등의 어구에 포획되는 모습이 마치 유령어부와 같다는 의미로 접근해, 플라스틱 어구 사용의 폐해와 대안에 대해 조명했다. 대안으로는 어구의 사용부터 수거까지 체크 후 반납하는 어구 보증금제, 이외 실명제 관리 제도를 제안한다.

'뜨거워지는 바다'는 플라스틱 소비·생산과 지구 온난화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바다 수온 상승과 산호초 백화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에서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역으로 해양 생태계의 위기로 이어지는 역설적 관점을 제시했다.

마지막 공간의 '우리의 실천으로 만드는 희망의 바다'는 위기의 바다를 희망의 바다로 바꿔보는 체험 콘텐츠로 구성됐다. 대형 미디어월 속 대교가 보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태블릿 PC 또는 QR코드를 통해 해양 위협 요소를 아름다운 해양 동물로 색칠해 변환하는 형식을 적용했다.

최근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21세기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부상했다. 이는 해양 생태계를 포함해 연계적으로 인간에게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심과 개선이 요구된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오션<sup>Digital Ocean</sup> 기술의 폭넓은 활용과 무엇보다 인류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의\_051)309-1900 / 편집실

## 광대들의 새로운 20년을 향한 몸짓

# 제21회 광대연극제

2025. 8. 8. ~ 10. 광안리 해변 일대

올해 제21회를 맞은 '광대연극제'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개최한다. 희극인들의 무대를 통한 지역 연극예술 발전과 시민과의 예술문화 소통 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 행사이다. 2025년에는 '화합과 평화'를 주제로, 나뉘고 분열된 한국의 현실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광대들의 난장** 8월 8일 오후 8시 30분에는 광안리 해변 남남의 광장에서 개막식과 함께 대중가요 「최진사댁 셋째딸」을 모티브로 각색한 마당놀이, [꿈꾸는씨어터(주)]의 <최진사댁 셋째딸 신랑찾기>(60분)로 시작을 알린다. 광안대교 야경을 아름답게 장식한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를 배경으로 극단 [디아코노스]의 <엄마의 바다>(70분), 극단 [여정의] <달다방>(70분), [연희공방 음마갱깽]의 <음마갱깽 인형극장>(60분), 극단 [세진]의 <채플린 타임즈>(60분) 등을 3일간 만날 수 있다.

**해변위의 난장** 8월 9일 오후 8시 20분부터는 고전 설화와 동화를 결합한 환경 뮤지컬, [유상통프로젝트]의 <별주부전

에 끼어든 인어공주>(45분)를 선보인다. 극단 [즐거찾기는] <바가 앤 본드>(30분)를,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은 <크크크>(60분) 공연을 해변 특설무대(뽕 클럽 맞은편)에서 진행한다.

**거리위의 난장** 8월 9일 오후 9시부터는 광대의 프리포즈를 팬터마임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무언극인 [클라운송 프리덕션]의 <첫 번째 프리포즈>(20분)를 시작으로 [주식회사 도적단]의 <빽빽이의 조금 행복한 선물>(20분), [극예술실험극단 초의] <TEMPO RUBATO\_자유로운 속도로>(20분), 극단 [아이컨택[CONTACT]]의 <SOLITUDE WALL\_솔리튜드 월>(20분)이 공연된다. 수영구생활문화센터, 호메르스호텔, 호텔1, 포토그레이 등 거리극의 특성을 살려 해변 주변 곳곳에서 펼쳐진다.

**시민들의 난장** 연극제 3일간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호메르스호텔 맞은편에서 분장 퍼포먼스를 통한 시민 참여형 난장이 열린다. 총 12개 팀의 공연이 선사하는 열정과 에너지로, 한 여름밤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려보길 바란다.

문의\_051)611-8518 / 편집실



# 도구의 기억 ; 소환

## 박주현 개인전

2025. 7. 16. ~ 8. 6. 아트웨이 갤러리

노동과 도구를 주제로 꾸준히 작업해 온 박주현 조각가의 개인 전 '도구의 기억 ; 소환'이 동구 아트웨이 갤러리에서 8월 6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망치, 펜치, 자물쇠, 카메라, 빨래판 등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소재로 삼아,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과 존재의 본질을 성찰한다.

작품 속 도구들은 단순한 기능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신체나 악기 등의 형상과 합쳐져 나타난다. 박주현 작가는 도구들을 작품의 오브제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노동의 대상이자 인간의 삶을 담는 물질로서 재구성한다. 도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경험을 함께 품는다.

대표작 「달밤에」는 망치 손잡이에 섬세하게 새겨진 나무, 사람, 달의 이미지로 서정적인 감성을 전한다. 망치가 지닌 강한 힘과는 대조적으로, 작품 속 세상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관람객은 멀리서는 익숙한 망치를 보지만 가까이 다가설수록 새로운 감성을 마주하게 된다.

박주현 조각가는 “도구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인간의 삶과 기억, 신체의 연장”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작품은 손과 팔, 머리 등 신체와 융합된 도구를 통해 창조와 노동, 파괴와 기억 등 이중적 의미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총 25점의 조각 작품을 통해 일상 속 사물에 담긴 삶의 은유와 철학을 깊이 있게 보여준다.

문의\_051)915-8385 / 편집실

1 삶과 죽음\_나무, 50×50×180cm, 2025  
2 yellow\_청동, 나무, 못, 20×30×30cm, 2024





황수로 박사

국가무형유산 제124호 궁중채화장이자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꽃 전문박물관인 한국궁중꽃박물관을 설립한 황수로 박사가 부산의 예술문화발전을 위해 부산예총에 기부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황수로 박사는 조선 궁중 꽃 문화의 전통을 복원하기 위해 반세기 동안 연구, 복원, 전시 활동을 이어왔다. 조선시대 화려하게 피어났던 조선왕조 궁중채화는 일제강점기에 소멸되어 역사의 기록에만 현존해 왔으나, 황수로 박사의 연구로 인해 『고려사』,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청장관전서』의 「윤화매십전」 등의 고문헌들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복원하였다.

황수로의 궁중채화는 2005년 APEC 정상회의 특별전 '조선왕조궁중채화전', 2007년 UN본부 '한국전통공예특별

## 국가무형유산 궁중채화장 황수로 박사 부산예총에 예술문화 발전기금 전달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2016년 미국 클리블랜드뮤지엄 초대전 등 각종 행사와 국민 만찬장을 장식하며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2013년 유홍준 국가유산청장의 '지정 신청 요청'으로 국가중요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궁중꽃박물관은 일체의 공적 지원 없이 황수로 박사의 사재와 후원금으로 설립됐다.

황수로 박사는 현재 동부산CC 회장, 한국궁중채화연구원 회장,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36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2023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2004년 부산꽃예술작가협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부산예총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기부금은 지역예술인과 시민들을 위한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편집실



왼쪽부터 부산꽃예술작가협회 최정애 회장, 꽃예술작가 최정선, 황수로 박사,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 부산예술후원회 김귀옥 사무국장

돌아와요 부산으로 돌아와요 부산으로 돌아와요 부산으로 돌아와요 부산으로 돌아와요 부산으로 돌아와요 부산으로



오랜지바다\_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지루한 작품

**돌아와요~ 부산으로~**

1980년대 조용필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 평화 무드에 맞춰 부른 노랫말은 시대상과 맞아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요즘 다시 이 가사를 떠올린다. 연일 신문에는 '지역 소멸 위기' '인구 절벽' '도시 존립 위협' 등 기사들이 넘쳐난다. 청년이 부재한 동네를 걷다 보면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방관자의 자세를 풀고 부산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두려움이 와닿는다.

하지만 부산 사람들은 안다. 부산만큼 살기 좋은 동네는 없다고. 부산은 조금만 나가도 육지와 맞닿은 바다를 볼 수 있고, 서쪽으로는 강원도에서 발원한 낙동강이 풍요로운 경관을 만들어 낸다. 높은 산들이 도시를 에워싸고 있어 지형적으로도 지루할 틈이 없다. 도시와 지역은 단지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지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감각적 경험과 공동체의 연결 등 무형의 가치를 함께 생성해 내며 존재한다.

길을 걸으며 조용히 읊조린다. “돌아와요~ 부산으로~” 뜨거운 여름, 그 자체로 눈에 띄는 완벽한 바다뷰와 하늘 높이 치솟은 마천루가 뒤엎긴 화려한 모습에서 잠시 눈을 돌려 부산의 예술과 로컬이 가득한 부산다운 매력력을 소개한다. 부산은 언제나 부산에서 태어난 자와 부산에 눌러앉은 자, 부산으로 돌아온 사람이 부대끼며 만들어온 도시이다.

/ 편집실



수영구 '호암골 호랑이 구전설화'를 모티브로 한 섬유제품

**오랜지바다**

마을기업 '오랜지바다'는 2014년 지역 작가들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부산을 모티브로 한 부산 작가의 수공예 작품과 직접 제작한 엽서, 마그넷, 키링 등 아기자기한 소품을 판매한다. 바다의 풍경과 여행지에서 만난 셀러의 감성이 이 공간에 오롯이 녹아들어 있다.

문의\_051)758-5308

돌아와요 부산으로 돌아와요 부산으로 돌아와요 부산으로 돌아

돌아와요 부산으로 돌아와요 부산으로 돌아와요 부산으로 돌아

## 광안리 해수욕장



### 포디움다이브 PODIUM DIVE M

매력적인 도시는 골목길이 아름답다. 광안리는 바다만으로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곳곳에 로컬의 감성이 담긴 예술문화공간들이 숨어 있다. 해변을 걷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선 작은 골목 모퉁이에서 콘크리트 외벽 기둥에 재미난 벽화가 그려진 포디움다이브를 만날 수 있다.

한 층 한 층 내려갈수록 깊어지는 취향의 공간이라는 포디움다이브는 약 1,200평 규모의 지하 3개 층이 한눈에 들어오는 보이드 구조이다. 지하 1층은 카페, 지하 2층과 1층 일부는 갤러리, 지하 3층은 서점·라이프스타일숍(아크엔북)으로 구성돼 있다. 베를린 장벽의 벽화로 잘 알려진 독일 1세대 팝아티스트 짐 아비농의 전시가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짐 아비농 : 21세기 스마일’은 생동감 넘치는 색채와 만화같은 캐릭터들이 등장해 풍자와 재치로 동물, 사람, 환경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담아내며 화합과 공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작품은 시끌벅적 활기찬 21세기 도시의 낮과 밤으로 때로는 활기차고, 때로는 우울하고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진정한 우리 시대의 초상이다.

문의\_051)752-2200



짐아비농\_City of easy, Acrylic on paper, 200×260cm, 2024

# 기장 문오성



주민들과 함께하는 부산 기장 문동생활권 여촌신활력증진사업

## 로컬매거진 『문오성』

부산의 동쪽 끝으로 가면 핫한 동네 '기장'이 나온다. 해변도로를 드라이브하며 부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해동용궁사와 바다 전망의 카페, 아난티 리조트와 같은 여행코스가 잘 갖춰진 곳이다. 아무리 인기 있는 관광지라도 그 속에는 감춰져 있는 지역인들의 삶이 있다. 로컬매거진 『문오성』은 잘 알려지지 않은 문오성(기장군 일광읍 내 문동, 문중, 칠암, 신평, 동백 다섯 마을) 마을의 이야기를 외부로 확산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인쇄 잡지이다. 마을의 역사·지리·예술문화·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정보와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소개한다. 기장의 숨은 보석과 같은 문오성의 이야기를 수다스럽게 전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읽다 보면 『문오성』에 꼭 가고 싶어진다.

문의\_070-7333-2234



로컬매거진 『문오성』



골목사진전 전경

돌아와요 부산으로 돌아와요 부산으로 돌아와요 부산으로 돌아와요 부산으로 돌아와요 부산으로 돌아와요 부산으로







인종 재외청

# 배롱나무

배롱나무는 여름부터 백일 간 붉은 꽃을 피우며  
인내와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선비의 절개를 닮은 모습으로 예부터 서원과 정자에 심어졌고,  
우리 정서와도 깊이 닿아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배롱나무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글 사진\_우경호 (사)부산사진작가협회 섭외간사장, 부산사진대전 추천작가





안동 병산서원

## 유배의 뒤편

삿갓섬에 다녀간 뒤로 십오 년이 흘렀다. 횃집 주인이 일행 두 명을 위해 발동기를 돌리던 그날, 그 어선에서 내 눈을 끈 것은 별새처럼 떨어대는 하얀 천이었다. 기세등등하게 우리는 배를 띄웠다. 텅텅거리는 배의 갑판에서 멀어지는 벽작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12인승 도선이 한달음에 삿갓처럼 엮던 노도에 나를 내려놓았다. 벽련항에서 건너다볼 땐 조그마하던 섬이 그 속에 들어앉으니 한 세상이 된다. 세월이 너무 흘렀나. 앵강만이 보이던 전망도, 서포가 자식처럼 돌보았을 반려목 동백도... 이젠 모두 사라지고, 초가집과 돌판으로 덮은 좁은 마당, 그것이 다였다.

그날, 서포 초옥에서 내가 만난 것은 커다란 장대못들이었다. 대가리가 큰 쇠못들이 여기저기 박혀 어떤 것은 소쿠리를 지탱하고, 어떤 것은 스윽 빛을 내며 내



반응을 훑기도 하였다. 서포처럼 너비가 걸어보기도 하였고, 마루에 무연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 시간을 보낼 때는 침울한 적요가 깊어 바다의 운슬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 못에서 서포의 아픔을 읽어내느라 컴퓨터와 씨름하며 그해 여름을 보냈다. 올라오는 길에 김만중문학관 관리인으로부터 남해 현령이 유배 온 김만중을 용문사에서 지내게 했지만, 김만중은 감시를 피해 몰래 뗏목을 타고 노도로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문헌에 있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왕후의 숙부라는 거물급 인사에다 위리안치된 것도 아니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유배지라는 영역 안에서 더 작은 영역으로의 도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그렇게 아팠을까.

허리춤까지 오는 작은 대문은 엄마의 영역 표시다. 자신의 동선을 작은 집에 가두고서 엄마는 칩거 중이다. 자식들 집에도, 주간보호센터에도, 병원조차 가지 않으려는 엄마한테 말로 먹고사는 딸이 번번이 백기를 든다. 보호사가 오지 않는 주말에 울산에서 세 시간을 달려 내려간 동생이 보내온 사진 속 강마른 엄마는 온전히 방에 혼자 계신다. 문고리를 잠그고 일체의 손길을 거절하고서야 누워 쉬신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려는 구십 노파의 고군분투에 가슴이 미어진다. 애걸복걸하여 영양주사 바늘을 어찌어찌 꽂았어도 일거에 잡아빠서 던져버리는 통에 방문의료진이 머리를 툰다. 이 시간은 엄마에게 어떤 시간일까. 평안은 누군가의 배려가 시작되기만 하면 여지없이 깨진다. 엄마는 삶을 물린다.

엄마의 유배 생활을 우리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서포는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고는 놀라서 마루에서 마당으로 엎어져 굴렀다고 한다. 그가 앉았던 자리가 이쯤일까. 손바닥으로 살그머니 마루판을 쓸어보니 따뜻한 나무의 질감이 정겹다. 어찌 견디셨소. 어찌 버티셨소. 엄마는 절대 집을 떠나지 않으신다. 자식들이 오면 으레 자동코스로 여기든 드라이브나 산책을 접고는 칩거에 들어가셨다. 언제부턴가 음식을 줄이고, 움직임을 줄이며 본인에게 집중하셨다. 많은 것을 잊었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며 돌봄을 거부하는 엄마를 설득할 방법은 없었다. 한번은 미숙한 보호사가 119에 전화했고, 소방관과 사투를 벌인 엄마는 더 깊숙한 혼자만의 섬으로 건너가셨다.

곧 그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우리하다. 한 시간의 만남을 끝으로 엄마한테 쫓겨난 날, 발길이 영천강 둑길로 향했다. 엄마와 함께 보던 풍경을 혼자 보았다. 왜가

리 한 마리가 미동도 없이 강 건너에 시선을 고정하고 오래 서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눈물이 질금거렸다. 엄마를 말릴 방법은 없다. 십 년 전쯤, 엄마가 알츠하이머진단을 받고 나서 부산 우리 집으로 모셨는데 다음 날 아침에 불호령이 떨어졌다. 내 집 놔두고 왜 자식 집에 사느냐며 가방을 들고 곧바로 아파트를 벗어나셨다. 걸음은 어찌 그리 빠르신지... 설득하려다 엄마를 영영 잃어버릴 지경이라 부리나케 차 키를 들고 내달아 진주까지 달렸다. 그 뒤 주말마다 뵈는 엄마의 행복한 모습은 그나마 위안이였다. 어쩌면 근심 걱정 있어 다른 병보다 낫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 자식이 오는 주말이면 놀러 갈 생각에 미리 가방을 챙겨두고 계셨다. 이틀간의 안정된 행복, 이어서 닷새간의 외로운 휴식, 그런 세월이나마 더 오래 이어지길 빌었건만 이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다.

초옥도 유배를 당했다고나 할까. 산뜻한 현대식 건물에 자리를 내어주고, 휘어진 경사로를 따라 발품을 더 팔아야 하는 곳으로 물러나 있다. 바다가 보이지 않는 집터가 안쓰럽다. 마당에 깎은 돌들이 주인의 율화가 문쳐있는 것만 같다. 흙 마당이 어울린다 싶은데... 사실 김만중문학관에 자리를 내준 것이고 보면 이러쿵저러쿵할 일은 아니다. 그래도 근사한 현대식 건물에서 커피 한 잔 들고 앉기보다는 초옥 마루에 선인처럼 걸터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여행을 하고 싶어지는 후손에게는 아쉬운 일이 된다. 누름돌 사이에 골골이 풀이 솟아오른다. 단단한 돌판에도 굽히지 않는 풀이 마당의 주인 같다.

꽃꽂한 정신은 감출 수 없는 모양이다. 그는 장희빈 일가의 추문을 들추는 언관들을 탄압하는 서슬 퍼런 숙종에게 직간하다 유배형을 받았다. “우리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 말을 통해 시문을 짓는다면, 이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며 한글로 소설을 썼다. 대제학을 지낸 유학자에겐 흔치 않은 사고며, 위험한 결단이었으리라는 생각에 절로 고개 숙어진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혼란의 시대를 살아낸 엄마는 생각이 분명한 어른이셨다. 한번은 선생님의 선심을 거절하셨는데 내 자식 학비는 내가 책임진다는 이유였다. 노령연금 신청하라는 통지가 왔을 때도 “내가 나라를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는데 그런 도움을 받을 까닭이 없다.”고 하시며 딱 잘랐다. 독서를 좋아하셨고, 가진 것 없었지만 인정이 많으셨다. 일찍 간 가장 대신 생계를 책임졌으며, 죽을힘을 다해 아이들을 교육하셨다. 내가 쓴 책도 그냥 받으신 적이 없는 당신은 전생에 대쪽같은 선비였을까. 유배의 뒤안을 돌아본다. 엄마는 스스로 삶을 갈무리하다가 이제는 작은 집 안에 보이지 않는 자



기만의 울타리를 치셨다. 자발적 유배, 다른 선택지는 없을 것만 같다. 선택이 실존을 증거한다고 본 하이데거의 주장을 지지하지만 엄마 삶의 마지막 부분을 곱게 장식해 드릴 묘책을 찾아 헤맨다. 허전한 마음에 바다를 건너온 유배의 영토에서 도 나는 손수건을 묶고 풀기를 그칠 수가 없다.

보고 싶다. 보이지 않는 선망의 세계, 피안으로까지 이어지는 바다 너머의 세상을 그려보려 산길을 오르기로 한다. 전망대에 오르면 구운몽을 쓴 서포가 어머니를 향해 문안드리던 한양이 있는 구름 너머가 보일까. 우리 엄마가 그리는 걱정 없고 질병 없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 바다 너머를 볼 수 있을까. 툭툭 털고 일어서는 마루판에 나이트가 쉰다.

글. 송명화 수필가

## 창작 음악의 실험과 가능성 — 시대와 삶의 기록을 그린다

### 작곡가 **백현주**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창작전공 전문사과정 졸업
-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미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 국립합창단, 서울·부산·울산시립합창단 창작합창곡 및 편곡작품 다수 발표
- 현) 루체테음악극연구소, 부산작곡마당 대표,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외래교수, 부산지휘자합창단 반주자



한국 음악 분야, 특히 부산에서는 어떤 작곡가들이 활동하고 있을까. 통상 공연에서는 플레이어<sup>Player</sup>인 연주자들이 국제 콩쿠르 대회 등 뉴스를 통하여 자주 보도되면서 주목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작곡가에 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럼에도 한국의 창작 음악의 역사는 독창적 예술정신을 구현한 많은 작곡가를 배출했고, 현재에도 그 창작의 열기는 이어진다. 여기에 수년간 기성 주제와 표현의 결을 달리한 선 굵은 음악극, 창작오페라 공연을 진행하고 독자적 세계를 펼치고 있는 백현주 작곡가가 있다. 그의 음악 세계와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자.

첫인상에서 본인에 관련한 분명한 뜻과 굳은 의지를 품고 나아가는 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기성의 음악계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본인만의 독창적 음악 활동을 하는 작곡가로서, 평소 지역 음악계의 저변 확대 및 순수음악의 변화와 새로운 방안 모색을 위해 여럿 고민한다고 언급했다. 창작시 소재는 현재 사회 속 일어나고 있는 이슈 또는 문화

현상과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방향성을 정하며,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결합해 최종 작품의 결과물로 적용한다.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인상적인 풍경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한 느낌을 통한 감정의 연결고리를 음악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본인의 시각에 흥미와 재미를 더해서 공연에 선보이게 되었을 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해야 하는 사명감으로 대중성보다는 예술성이 짙은 성격의 공연을 선보인다. 그의 창작과 작품의 선택은 모두가 알만한 정형화된 소재보다는 주목받지 못한 것을 조명한다. 이러한 성향과 방향성에서 그의 남다른 결단력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작품을 통해 시대를 담아내고 삶을 기록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작품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극과 창작오페라를 통해 부산 지역 공연 양식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형식을 실험하고 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음악계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견고한 엘리트, 아카데미Academy 시스템의 변화와 대안의 필요성을 느낀 백 작곡가는 음악의 다양화를 위한 대외적 활동을 시작한다. 이와 관련한 정규과정을 밟지 않은 누구든지 음악과 작곡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작품을 쓰고 또 발표할 수 있는 넓은 마당의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일환으로 시작한 변화 방안 중 하나가 [부산작곡마당]이다. 이곳에 대표를 맡으면서 2005년 설립 이후, 2006년 8월 첫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성을 기반한 음악적 실험과 한국 창작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부산은 아직 제도권 작곡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다음 세대 작곡가들에게 창작의 공간과 발표의 장을 확대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의 중요성을 과제라고 봤다. 공연 외로 지역 내 새로운 음악 문화를 꿈꾸는 작곡가들의 모임을 추진함으로써, 젊은 예비 작곡가들의 발걸음도 꾸준히 진행했다. 본 기조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창작곡 공모 및 발표회 개최, 새로운 아이디어로 진행되는 기획 공연 및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진행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들이 모여 현재에는 한국 창작 음악에 새로운 대안 작곡 단체로 자리매김한다. 최종적으로는 타 문화단체들과의 공동, 연대사업 등을 통해 연계적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그는 평소 다른 장르와 만나는 음악이 좋아 오페라, 뮤지컬을 자주 보러 다녔다. 기존의 오페라 공연을 보면서 ‘작품이 왜 이렇게 다양하지 않을까’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이러한 질문은 새로운 단체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다. 이후 생각의 결과물이 쌓여 현재의 [루체테음악극연구소]를 설립한다. 루체테는 라틴어로 ‘밝게 빛나라’라는 뜻으로, 모든 아티스트가 빛나고 그 빛이 모두에 퍼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정했다. 단체는 창작오페라와 음악극을 좀 더 새로운 형식으로 실험 및 개발하고 기존의 오페라단과 차별성을 갖추며, 음악계에 만연한 문제들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

발했다. 2015년 발족 이후 다양한 장르의 극음악을 연구하고 공연을 진행했다. 단체를 운영 중 잊지 못할 순간으로 코로나 시기 공연계가 힘들었을 당시를 떠올리며, 창작오페라 <그 이름 먼 구름> 작품 공연 상황을 언급했다. 부산 출신 독립군이자 작곡가인 먼구름 한형석 선생 이야기를 소재로, 긴박한 상황에서도 예술로서의 저항과 그것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확실한 현 사회 속 공동체 희망을 주시킨다. 2024년 부산문화재단의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올해의 포커스온’으로 창작오페라 <페스트>가 선정되는데, 이는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공연예술분야의 지원 및 재공연으로 이어지며 그간의 창작물의 과정을 결과로 증명했다.



8월 체코의 국민 작곡가 레오시 야나첵의 오페라 한국 초연 <영리한 작은 여우> 공연 준비로 한창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는 음악인을 꿈꾸는 다음 세대들에게 본인의 활동이 “작곡가로 사는 인생도 재밌겠다는 도전 의식과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언급과 동시에 관객들에게는 현실 속 힘들을 공연을 통해 위로를 받고 현실을 이겨낼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백현주의 정형화되지 않고 독창성을 지닌 음악적 행보와 열정에 응원을 보낸다.

글 백근영

*néo-sculpture*

조각가  
강이수



- 개인전 13회
- 1997 대한민국환경조각대전 대상
- 부산비엔날레 감사
- 부산미술협회 부이사장 역임
- 부산시미술장식품 심의위원 역임
- 송해수미술상 운영위원 역임
- 한국조각가협회 회원
- (사)한송미술협회 회원
- 미국루미나갤러리 Sculpture Garden,
- 중국청도항만공사, 부산시립미술관 등 작품소장

강이수가 제시하는 조각의 근본적인 성찰에서 비롯된 표현방식은 오늘날 조각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사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작업은 광범위한 역사를 관통하는 전일적(Holistic thinking, 전체를 보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감각을 바탕으로, 조각의 기원을 향한 몰입과 충실함을 통해 오리지널을 간직한 *néo-sculpture*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는 신비적 동양사상과 물질을 기반으로 한 서양 세계 사이에서 심오한 조화를 꿰뚫어 넓은 문화적 맥락으로 작품을 함축시킨다. 인류 최초의 선사시대 예술부터 현대예술의 감각적 상징까지 통찰하는 그의 예술 정신은, 삼라만상의 상징을 보고 공명의 화음을 들으며 사방에 가득한 친밀감을 경험하게 한다. 조각가 강이수는 무겁고 거친 재료를 다루며, 유행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감각을 따른다. 그는 물질이 예술이 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한 상상과 사유를 통해 형상을 끄집어내는 작가이다.

강이수는 돌과 철을 다룬다. 두 재료는 그의 작품세계에 있어 일관되게 등장하는 주재료이다. 하지만 재료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변화를 보인다.

1990년대 작품은 철의 조각을 이어 붙이며 형태를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다. 철이라는 소재를 열기설기 엮거나 하나의 구조물로 활용한다. 강인해 보이지만 구부러질 수도 있는, 철의 강도와 연성을 놓치지 않는다.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돌의 외곽선을 따라 형태를 확장해 나가며 공간 속에서 드로잉된 철의 장식성이 돌의 무게감을 상쇄시킨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돌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다. 초기부터 작품의 모티브로 작용한 암각화는 돌을 단순한 덩어리에서 해방시키고 철의 드로잉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마치 바위 위에 새겨진 평면 이미지가 공간 속에서 입체적으로 생성되는 환영적 형상을 이룬다. 게다가 정제되지 않은 거칠거나 다소 정면성이 두드러진 형태가 원시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사실, 작품의 외형은 자코메티의 추상적·환상적·상징적이고 전율적인 일련의 가늘고 긴 오브제 형식을 닮았다. 하지만 1999년 개인전에서 선보인 상형문자를 모티브로 인간 생활을 형상화 한 작품 등을 살펴보면, 그가 상형문에서 포착한 것은 범신론적 사고의 세계관이라기보단 형상에서 드러난 해학과 주제를 강조하는 방식 등으로 추측된다.

작품은 점차적으로 덩어리감을 강조한 방식으로 나아간다. 돌의 육중함을 유지하고 금속은 면을 용접해 부피감을 드러낸다. '원시-기호-현대'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석재, 철재, 스테인리스 스틸 등 다양한 재료를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하며 매스 중심의 사실적 형상을 구현해 낸다. 「말」이라는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하나는 금속 조각을 밀도 있게 짜집기 하듯 용접하고, 다른 하나는 연마된 금속 표면의 근육 형태와 어두운 석재를 결합해 말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재료의 조합에 있어 치밀한 계획과 균형 잡힌 표현을 위한 작가의 용의주도함을 보여준다.

2014년부터는 '새'를 주제로 한 시리즈를 발표한다. 철 구조의 조형적 이미지가 매스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금속과 돌이 가진 무거움을 새의 형상이라는 가벼움에 대응적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무거운 재료를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의미구조를 보여준다. 사실 이것은 대립적이기보다는 역설적 표현이면서도, 한 덩어리에 버무려 재치 있게 발현되는 유머스러운 시각적 이미지로 읽힌다.

이야기를 조각 작품에 삽입하려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새의 표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라보는 새」, 「사유하는 새」, 「서 있는 새」, 「걷는 새」, 「넉넉한 새」, 「세련된 새」, 「새벽을 여는 새」와 「밤을 지키는 새」 등은 우리 주변의 인간 군상을 새에 투영하거나 풍자해서 보여준다. 작가는 작품에 심오한 철학과 복잡한 의미를 담기보다는 형태에서 오는 시각적 재미를 강조한다고 말한다.

*“사실 새 같지만 새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독특한 새들이지. 머리에서 땀든 느낌이 녹아 들어가 형태가 돼요.”*

활시위를 잡아당긴 듯한 가늘고 긴 눈은 강이수 작품의 트레이드마크다. 세상을 관조하고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부처의 눈에서 영감을 받았다. 정적이고, 침잠시키고, 가라



앉히는, 고요한 무념의 경지에서 생명의 힘을 표현하는 동양적 감각으로 작품의 아우라<sup>Aura</sup>를 완성한다.

「나는 새」에서 선보인 기동처럼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돌의 아상블라주는 날고자 하는 의지를 단순화시킨 반추상으로, 투박한 형태와 거친 질감이 우리의 돌탑을 감상하게 한다. 작품에서 재료의 베리에이션<sup>Variation</sup>으로 형성되는 채색은 사실성의 증가보다는 실재와 가까워지려는 욕구로 생각된다. 회화적 이미지로서 기존 조각의 공간감을 벗어나고 새로운 이미지로 전환하려는 작가의 의지이다.

강이수는 예술을 소통의 수단이자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인류의 전진 운동, 즉 진보의 한 방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원시와 현대' '물성과 정신' '무거움과 가벼움' '형상과 상징'을 오가며 세계를 관통하는, 언어로써는 도저히 전달될 수 없는 것을 기호적 형상으로 재창조하고 있다.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은 유행이나 스타일이 아닌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보편적 원리에 주목한다. 이러한 원리가 물리적 세계의 의미 있는 형태를 이루는 과정을 지배하는 것처럼, 강이수가 지향하는 néo-sculpture는 과거와 현재를 가로지르며, 조각이라는 매체가 여전히 유효하고 진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자 동시대 조각이 나아가야 할 진보의 좌표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글\_정혜주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새기는

시조시인  
**주강식**

- 부산교육대학교 졸업,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 1982년 『시조문학』 천료 등단
- 1994년 성파시조문학상 수상
- 2017년 부산문학대상 수상
- 교육평가원 국정교과서 국어 집필 심의 연구위원 역임
- 전) 시조문학회 회장, 한국어문교육학회 회장,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회장,  
부산 지역 초·중등학교 교사,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역임,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 현) 부산문인협회 이사·자문위원,  
시조시인협회 회원

시조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주강식 시인은, 한국 현대시조의 살아 있는 역사이자 지역 문학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오랜 교직 생활과 함께 시조 문학을 집필해 온 그는, 평생 문학과 교육의 접점에서 시조의 현대성과 예술적 가치를 모색해 왔다.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를 날카로운 감각과 절제된 형식으로 담아낸 그의 시편들은, 우리 시대의 기록인 동시에 인간의 내면에 대한 통찰이다.

## 시조와의 첫 만남

주강식 시인은 함안 시골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조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담임교사가 시조 카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조를 접하게 했고, 그것이 시조 문학에 대한 흥미로 이어졌다. 책을 구하기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는 어렵사리 구한 시조 100선 이 담긴 책을 한 달 만에 모두 외울 정도로 시조에 몰입했다.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들려주는 영화나 소설 이야기에 빠졌고,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더 많은 책을 찾아 읽었다. 당시에는 질 좋은 종이를 구하기 어려워 교과서조차 낡고 찢기 쉬운 종으로 제작되곤 했다. 일반 도서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종이 속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은 모두 찾아 읽고 외우며 지적 호기심을 채워갔다.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한 뒤 장학금을 놓치자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에 입학했으며, 고등학교도 자퇴할 뻔했지만 친척의 조언으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학교 도서관의 크기나 시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하루에 4~5권의 책을 밤새 읽기도 했고, 법대를 꿈꾸기도 했으나 가정 형편을 고려해 교육대학에 진학해 교직의 길을 걷게 되었다.

## 등단의 시작, 법씨 동인과의 만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1970년대, 부산시 교육청에서 시조짓기 운동을 펼치면서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조짓기 공모전이 열렸다. 학교의 권유로 응모했는데 뜻밖에도 입상했다. 이 일은 우연을 가장한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이후 1974년 창립된 [법씨 동인(부산시조문학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조 창작에 나섰다. [한국시조시인협회] 이태극 회장의 권유로 시조

전문지 『시조문학』에 투고해 2회 천료로 등단하게 됐다.

법씨 동인 활동은 그의 문학 세계에 전환점이 되었다. 동인지 활동을 통해 창작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동료 작가들과의 교류는 문학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법학을 전공하려 했던 초기 진로는 비록 접었지만, 시조라는 더 깊은 인간 이해의 세계로 들어서는 발판이 되었다.

##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노래, 시조

주강식 시인은 시를 '노래'라고 정의한다. 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시인이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인이란 문학에 대한 기초 이론이나 정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시조가 단지 글자 수를 맞추는 형식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시조는 소리와 뜻을 함께 고려한 언어 예술로, 음보율에 따라 구성되어야 진정한 미감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정형시다. 일본의 하이쿠, 중국의 한시, 영국의 소네트 외에 정형시를 전통으로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다. 특히 자유시와 정형시를 엄연히 나누어 인식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시조는 시의 한 갈래로서, 그 자체로 독자적 형식미를 갖고 있으며, 시조가 시에 포함될 수는 있어도 시가 곧 시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시는 천의무봉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나치게 인위적인 표현은 오히려 아름다움을 해치며, 시조의 정형성도 음률과 운율을 살리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졸렬한 시인은 자기를 표현하고, 평범한 시인은 대상을 표현하며, 탁월한 시인은 세계를 창조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시인의 창의성을 강조한다. 대표작

인 「오륙도」는 단순한 지역 찬가가 아니다. 부산 해사고등학교에 재직하던 시절, 매일 바라보던 오륙도의 풍경을 통해 도시의 상징성과 발전에 대한 염원을 시조 형식에 담아낸 작품이다. 또 다른 대표작 「태산을 넘는 파도」는 1980년대 민주화 열기를 상징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 시로, 군사정권에 맞서 싸우던 시민들의 열망과 집단적 의지를 파도의 움직임에 비유해 힘 있게 그려냈다. 특히 작품에는 창의성은 살리되 인위적인 표현은 배제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 압축의 미학, 절제의 감성

주강식 시인은 시조의 본질을 압축성과 정제미에서 찾는다. 짧은 형식이 오히려 더 깊은 감정과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고 보며, 일본의 하이쿠나 장 콕토의 시처럼 간결한 표현 속에 큰 울림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 시조 창작의 핵심은 언어에 대한 민감성과 표현의 절제에 있으며, 시조는 결코 구시대적 양식이 아니라 오늘날의 복잡한 감수성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살아 있는 형식이라 전한다. 그는 시조의 현대화가 단순한 형식의 해체가 아니라, 전통적인 틀 안에서 새로움을 구현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시어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말 고유의 미묘한 뉘앙스를 살리는 창의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예쁘다’, ‘이쁘다’, ‘곱다’, ‘아름답다’처럼 유사한 뜻을 가진 단어도 각각 다른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중 어떤 단어가 시적 운율과 감성에 더 적합한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현대적 시조와 그 정체성

최근 들어 자유시 형식을 따르는 시조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는 시조의 정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곧 전통을 지키는 일이라 본다. 수백 년 넘게 이어져 온 시조의 역

사성과 민족 정서를 고려할 때, 그 형식을 쉽게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조의 현대화란 형식의 틀 안에서 언어 예술로서 창조성과 표현력을 확장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조에 담을 수 있는 주제가 무궁무진하다고 말하며, 정형이라는 뼈대 위에 현대적 감각과 창의성을 입히는 것이야말로 시조의 진정한 진화라고 본다. 살아 있는 형식으로서 시조는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다.

### 풍자와 해학, 그리고 공동체 정신

주강식 시인의 작품에는 풍자와 해학이 공존한다. 그는 이를 문학의 중요한 기능으로 보며, 사회에 대한 비판을 유쾌하게 풀어낼 수 있는 표현 방식으로 활용한다. 해학과 풍자는 긴장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으며, 감정의 언어를 넘어 사회를 바라보는 도구로서 시조의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시에 등장하는 ‘어깨동무’, ‘줄동무’ 같은 시어는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문학이 개인의 내면 고백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발언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인간관계의 회복과 공동체 의식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문학이 추구해야 할 본질은 ‘미美’이며, 그 미란 것은 단지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해소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를 예술적 깊이로 끌어올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한다.

### 문학과 교육, 감성과 품격을 가꾸는 길

주강식 시인은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문학과 교육의 접점을 모색해 왔다. 그에게 교육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의 전달이 아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성을 다듬고, 삶을 더욱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는 예술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 교육을 ‘인간을 만드는 일’이라 말하며, 그것이

문학의 역할과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다. 문학이 언어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고 타인과 소통하게 한다면, 교육은 그 문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삶의 태도와 품격을 형성하는 통로이자 수단이라는 것이다.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단어 하나, 시 한 구절을 가르칠 때에도 그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감성의 토대가 되기를 바랐다. ‘글짓기’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느끼는 법’을 가르쳤던 셈이다. 문학을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포착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믿었다. 그가 추구한 교육은 실용보다는 사람을 중심에 둔 교육이었다.

“100을 보고도 5밖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10을 보고도 1000을 느끼는 사람이 더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은 감성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감성의 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문학과 예술, 따뜻한 교육을 통해 충분히 넓혀질 수 있다고 믿는다. 교사로서 아이들이 더 깊이 느끼고, 더 넓게 공감하며, 더 단단한 인간으로 성장하길 바랐다. 그의 문학 세계는 이러한 신념과 맞닿아 있다. 단어 하나에도 감정이 실리고, 표현 하나에도 사유가 스며든다. 교사이자 시인으로서 늘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길 위에서 문학을 통해 삶을 배우고, 타인을 이해하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여정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

### 세상을 위한 노래, 시조

이제 원로 시조시인의 반열에 오른 주강식 시인은 여전히 시조의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그에게 시조



주강식 시조시집  
『활주로』 『황금률 넘어』

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삶을 노래하고 인간을 성찰하는 예술의 방식이다. 시대는 바뀌어도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시조는 새로운 언어와 감각을 입으며, 지금도 살아 숨 쉬는 문학으로 자리할 수 있다.

“시조는 사람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의 이 말처럼, 시조는 인간의 삶과 감정을 담아내는 예술이다. 문학의 본질이란, 세상이 점점 잃어가는 아름다움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남을 흉내 내는 글이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와 시선을 통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며, 자신 역시 그런 작품을 남기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사회적 불의, 인간관계의 단절, 감성의 빈곤 같은 시대적 문제들을 시조라는 형식 안에 담아내는 작업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예술의 실천이다. 그가 앞으로도 써 내려갈 시조 한 편 한 편이, 이 시대의 감정과 기억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그리고 후배 시인들에게 창작의 지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인물사진\_박준영

No. 43

휴머니스트

최성아

통들이 세탁조가 과제를 발표한다  
 같은 물 나눠 먹고 땀자국 지워가는  
 어울려 살아가는 법  
 통 안에서 익힌다

쉬운 일 힘든 일도 뒤엎쳐 나눠보면  
 하루하루 씨름하는 참살이 터득할까  
 물벼락 맞은 자리에 사람 내음 입힌다

새뜻한 안목으로 젖은 꿈 말려가며  
 잘 익힌 멧을 얹어 새 길로 달려 나갈  
 채움을 아우른 무대 백수갈채 터진다

작가노트 |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 사람다움이야말로 우리가 찾는 인간성 회복이 아닐까

글\_최성아 부산시조시인협회 회장, (사)부산문인협회 시조분과 위원장

# RE: VIEW

- 문학** 한국시조시인협회 제1회 동시조문학상 수상 작품집  
서관호의 동시조집 『될성부른 나무들』 읽기 \_ 정희경
- 음악** 새로운 시간 누에보의 시간  
양상블 누에보 \_ 김윤선
- 미술** 시간을 초월한 추상抽象의 현시: 영적 세계 그리고 우주의 흐름과 신호  
힐마 아프 클린트: '적절한 소환' \_ 백근영
- 영화** 어두운 바다에서 건져 올린 기억  
2025 국제해양영화제 폐막작 <바다호랑이> \_ 박준영

# 한국시조시인협회 제1회 동시조문학상 수상 작품집 서관호의 동시조집 『될성부른 나무들』 읽기

글\_정희경 시조시인

(사)한국시조시인협회(이사장 정용국)가 우리 민족 고유의 정형 시인 시조의 우수성을 알리고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널리 시조를 전파하기 위하여 제정한 동시조문학상의 제1회 수상 작품집으로서관호 시조시인의 『될성부른 나무들』(2023. 어린이시조나라)이 선정되었다.

수상 작품집 『될성부른 나무들』은서관호 시조시인의 여섯 번째 동시조집이다. 『될성부른 나무들』은 물론이거니와 6권의 동시조집을 관통하는 것은 시조의 정형성이다. 그는 시조의 정형성을 목숨처럼 지키는 분이다. 정형성을 놓치면 시조가 아니라는 신념이 그의 동시조집에는 그득하다. 정형성에서 오는 리듬감 또한 가독성을 높이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가느단 아기 더덕/화분에 조심조심//만지는 손끝  
에서/향기가 묻어났다//교실에 산을 옮긴 듯/코가  
병긋 웃었다. - 「더덕 향기」 전문

“가느다란 아기 더덕”이라고 하지 않고 “가느단 아기 더덕”이라고 표현하여 ‘작은 음보-큰 음보’의 리듬을 맞추려는 그의 노력이 정형성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여러 작품에 보인다. 어느 한 편도 6구의 정형성을 놓친 작품이 없다. 이러한 정형성으로 인해 그의 동시조는 정갈하다. 동시조를 배우는 아이들에게도 그의 작품은 시조 정형으로써 모범을 보인다.

오늘은 내가 일등/창문을 열어놓고//문제집 설렁  
설렁/가볍게 넘겨본다//오늘 칠 시험 성적도/일등  
이면 좋겠다. - 「등교」 전문

나무와 들꽃들과/꽃들이 놀고 있다//유치원 아이  
들도/소풍을 왔나보다//바람이 저도 놀고파/살금  
살금 맴돈다. - 「공원」 전문

『될성부른 나무들』에는 아이들과 교감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아이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쓰는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동시조를 “주로 어린이를 독자로 예상하고 어린이의 정서를 읊은 시조”라 정의할 때 이 동시조집은 그 정의에 합당한 가장 충실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등교” “일등”이 “시험 성적” “일등”을 꼼꼼히보고 “공원”에서 직접 보고 느낀 바를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쉬운 언어로 표현한다. 그가 그리는 그림은 서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 동시조집에는 “액자를 걸어놓은 듯/명화감상 하는 듯”한 “창문”도 있고 “걸레를 빨아서 널면/햇살 같은 내 마음”(「청소 시간」)도 보인다. “휘감아 교실 향해/나팔을 불어대”는 나팔꽃, “보얀 젓가슴”의 흰 목련꽃, “꽃밭의 황제폐하로/등극하는 패랭이”, “봉숭아/채송화도/세수를 하”는 꽃밭이 드넓다. 마음이 순수해야 좋은 동시조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촛불이 타고 있다/삼단 케익 높  
은 곳에//가족들 다 모였다/선물  
상자 앞에 놓고//아빠의 어깨를 위  
해/내 안마가 필요해.

- 「아빠 생신」 전문

키 크면 뭐하는데/약까지 먹어야  
해?//작아도 몽당연필/글씨만 잘  
쓰잖아?//청소를 남만 시키면/키  
가 큰들 뭐하나?

- 「키가 큰들 뭐하나」 전문

『월성부른 나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이들의 시각을 통해 어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사회적인 작품이 곳곳에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동시조가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한 작품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안마”는 “아빠 생신”날 아빠를 위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 아닐까? “내 안마가 필요해”에는 아이의 확신과 신념이 함께 나타나 있다. 「키가 큰들 뭐하나」에는 키가 작은 아이의 항변이 옹골차게 자리하고 있다. 두 동시조 모두 아이만의 언어

로 어른을 향해 일침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아빠 생신」에서는 “선물 상자”보다도 자신의 “안마”가 더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경고를 보낸다. 작아도 잘할 수 있다는 화자는 「키가 큰들 뭐하나」에서 큰 것만 바라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어른에 대한 경고를 보낸다. 동시조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그윽한지 가늠하기 어렵다.

『월성부른 나무들』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 옛날 달걀찜은/할아버지 밥상에만//오늘날 달걀찜은/손자의 밥  
상에만//난 지금 할아버진데/주인 자릴 잃었어. - 「달걀찜 주인」 전문

달팽이 이사 가네/그 동넨 가물었나?//개미가 이사 가네/그 동넨  
홍수 났나?//아니래/땅값이 비싸/싼 동네로 간다네.

- 「이사 가는 이유」 전문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세태를 “달걀찜”을 통해, “땅값” 문제를 “달팽이”와 “개미”의 “이사”를 통해 말하고 있는 이 작품들은 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동시조를 통해 직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동시조의 내용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또한 “그 누가 자꾸 더럽혀/실 수조차 없는” 바다(「바다는 5」), “아뽕싸, 농약을 쳤구나, 먹잇감이 없구나”(「제비를 기다리며」)라고 한탄한 논, “농약이 무서운 줄만 알아듣고” 간 개구리(「개구리」), “날마다 밤낮없이 매연을 먹는” 가로수(「가로수」) 등을 통해 환경문제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서관호 시조시인은 국내 유일의 어린이시조문예지인 《어린이시조나라》를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5년간 발행하여 어린이시조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아동문학과 시조문학의 가교 역할도 충실히 해 왔다는 점도 수상 근거의 일부분이었다.

서관호 시조시인의 동시조는 “어린이의 입말을 생생히 살리면서도 정형률의 품격을 잃지 않고, 따뜻한 시적 감수성과 사회적 시선을 아울러 담아내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서관호 시조시인이 일군 시조밭에는 월성부른 나무들이 어느새 쑥쑥 자라 시조 숲이 울창하다.

## 새로운 시간 누에보의 시간

# 앙상블 누에보

글\_김윤선 음악평론가

[앙상블 누에보]가 지난 6월 20일 582번째 스페이스 음악회에서 진지한 실내악의 향연을 보여줬다. 앙상블 누에보는 2014년에 창단된 퓨전 앙상블이 클래식 음악과 한국적 음악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 퓨전음악을 추구하며 10년을 지나왔다. 서로 다른 음악어법을 가진 서양의 악기와 우리나라 악기가 서로 화합하여 새로운 발자취라는 의미를 담아 미래 지향적인 뜻을 품고 더욱 세련되고 진보적인 음악세계를 구현하는 실내악 단체로 새롭게 태어나 활동 중이다.

앙상블 누에보는 라틴어로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Nuevo'에서 이름을 따와, 익숙한 클래식 음악에 새로운 변화를 더 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퓨전 앙상블로서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하모니와 노련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음악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음악회는 신선하고 다양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 모든 멤버들이 서로의 음악을 존중하며, 진중한 자세로 준비했다. 구성원은 동아대학교 교수이자 피아니스트 서혜리, 바이올리니스트 김유리, 비올리니스트 강수이, 계명대학교 교수인 첼리스트 이동열, 클라리넷리스트 백동훈, 해금연주자 최유리와 장구에 이효빈 등이다. 이들은 솔리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며 독주자로서도 주목받는 젊고 재능 있는 연주자들로, 실내악 활동을 통해 유대를 나누며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교향곡의 웅장함이나 연주자의 화려한 기

교가 청중을 사로잡는 협주곡과는 달리 작곡가의 은밀한 내면세계와 정서를 긴밀하게 표현하며 깊은 호흡과 잔잔한 음악의 숨결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레퍼토리들로 무대를 마련했다.

첫 곡으로 독일 작곡가 슈만 R. Schumann의 「피아노 4중주 Ebmajor 3악장 Piano Quartet in Ebmajor, Op. 47 III. Andante Cantabile」을 연주해 감미로운 슈만의 서정성을 고스란히 표현, 첼로에 의해 유도된 주선율을 바이올린이 이어 가며 유기적인 대화를 보여 앙상블의 진면모를 보여주었다.

이정호의 해금협주곡 「가면무도회」로 이어진 두 번째 연주는, 국악관현악단 편성의 해금협주곡을 피아노와 첼로, 장구의 구성으로 연주했다. 이 곡의 작곡가 이정호는 클림트 G. Klimt의 작품 「키스」와 오스트리아의 화가 오스카 코코슈카 Oskar Kokoschka의 450여 점의 작품에서 형상화된 구스타프 말러 G. Mahler의 아내인 알마 신타러 Alma Schindler를 해금연주자를 통해 투영되도록 하여,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준 뮤즈를 해금으로 표현해 변화무쌍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굴곡 있는 음악을 들려주었다.

클라리넷 백동훈, 비올라 강수이, 피아노 서혜리에 의해 연주된 막스 브루흐 M. Bruch의 「8 pieces for Clarinet, viola and piano, Op. 83」은 재능 있는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아들을 위해 작곡한 브루흐의 의도대로 클라리넷의 재기 발랄한 소리와 테크닉적인 기량이 백동훈의 간결하고 민



첨한 연주에서 잘 드러나면서 세 사람의 절묘한 호흡과 연주력이 돋보였다.

중후하고 풍성한 소리를 가진 첼리스트 이동렬이 리스트의 「사랑의 꿈 Liebesträume, S.541」을 낭만적이고 기품 있게 전해주어 큰 박수를 받았다. 연주의 후반으로 갈수록 그 반응은 뜨겁고 열기는 더해져 관객들을 더 집중 시켜 갔다.

쇼스타코비치 D. Shostakovich의 「바이올린과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3곡의 소품 3 pieces for violin, clarinet and piano」과 피아졸라 A. Piazzolla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 여름 Four Seasons of Buenos Aires 중 Summer」은 이날 공연의 피날레에 해당할 만큼 극적인 화려함을 보여주는 연주였다.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과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3곡의 소품」은 생존과 음악 사이에서 고민한 동시에 사회주의 이념 속에서도 인간의 욕망을 표현할 줄 아는 진보적인 음악의 선구자였던 쇼스타코비치의 상업성과 예술성이 만난 곡으로, 유희적 경쾌함 속에 러시아의 정서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했다. 피아졸라의 사계 중 여름은 탱고의 열정에 클래식을 더하면서 재즈의 자유로움이 한껏 블렌딩된 하모니의 진가를 맛보게 해주었다.

지휘자에 의한 일사분란함보다 더 자유롭고 진솔한 음악으로 실내악의 내공을 보여 준 앙상블 누에보는 보편적 클래식 틀에서 벗어나 그들다운 음악세계를 구현함으로써 작은 공간에서의 음악예술이지만 섬세하고 투명한 음향과 그들이 가진 저마다의 호흡과 소통을 통해 각 악기의 조합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음악을 만들어 냈다. 부산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움에서 누에보의 시간은 서정적이거나 격정적이고 명쾌함을 지닌 음악의 즐거움을 관객들에게 선사한 고풍스러운 시간이었다.



# 시간을 초월한 추상抽象의 현시: 영적 세계 그리고 우주의 흐름과 신호

## 힐마 아프 클린트: '적절한 소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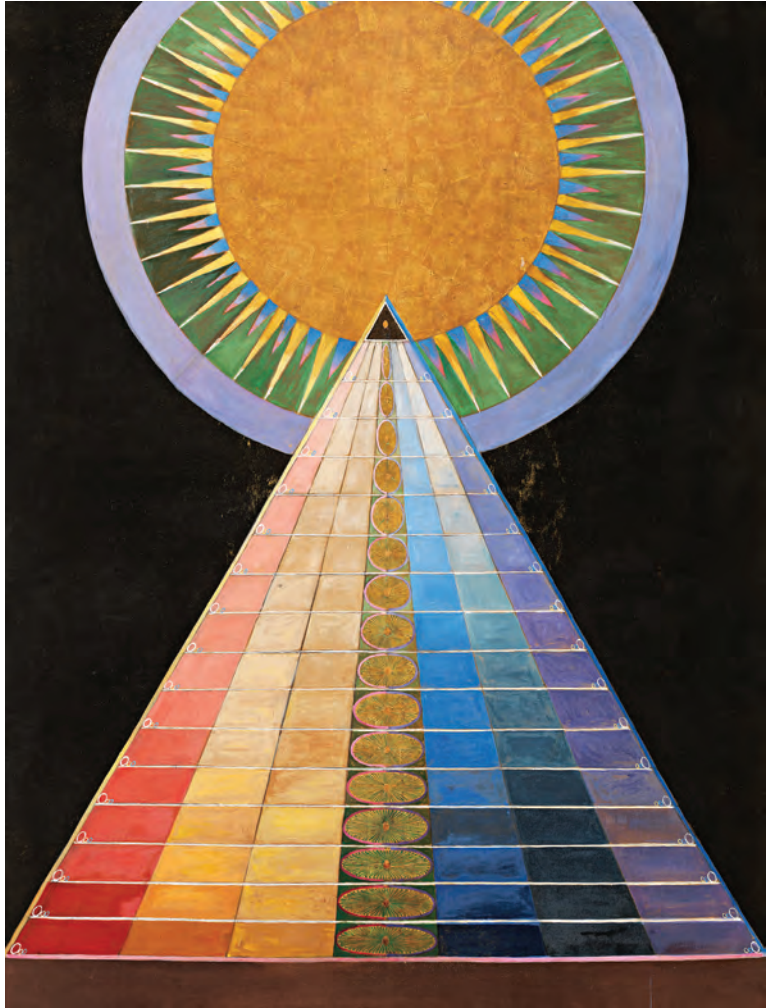
글\_백근영 한국화가



부산현대미술관은 7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서양미술사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스웨덴 여성 예술가의 추상미술에 관한 예술의 본질과 가능성 탐구를 목적으로 힐마 아프 클린트: '적절한 소환'을 개최했다. 전시는 회화, 드로잉 등 총 140여 점을 선보이며 그만의 독창적 시각 세계를 총체적으로 재조명했다. 자연·인물 관찰을 기반한 유희, 수채화부터 감각적 사유에 따른 사상을 표현한 상징주의 추상작품과 이를 구조적 해석으로 풀어낸 노트와 도해까지 다양하게 선보였다. 특히 생전 비공개된 작품이 전시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향후 추상미술의 역사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본 전시를 통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점은 미술사 속 추상미술 근간에 관한 논쟁 문제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시

조始祖는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와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을 떠올린다. 하지만 최근 동시대 여성 작가 클린트의 작품이 재조명되면서 사조와 이미지에 관해 어떻게 적용하고, 다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낳았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사후 20년간 작품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작가의 유언에 기인했으며, 당대에는 본인의 작품이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란 생각과 미래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 줄 사람들에게 대한 기다림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전시는 힐마 아프 클린트Hilma af Klint라는 여성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오랜 시간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점에 근거하여, 과거 그가 미래를 향해 건넨 회화적 신호를 다시 읽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No. 1, 그룹 X,  
 제단화, 캔버스에 유채, 금속박,  
 237.5×179.5 cm, 1915  
 힐마 아프 클린트 재단 제공. HaK 187.

### 장면 I. 대면—(식물과 자연 그리고 사물의 본질)

첫 번째 장면에서는 1880년대 후반에서 1890년대 중반까지, 작가의 초기 자연·인물에 관한 관찰 자적 특징이 묻어나는 작품을 선보인다. 식물의 구조와 생명의 질서를 포착하는 데에 탁월한 감각을 보여주며, 비가시성 탐구로의 이행의 시초를 제공한다. 초기작에서는 전반적으로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단순화되고 상징적 이미지보다 주변 사물에 대한 고전적 화풍의 세밀한 채색의 구상具象이 미지가 눈에 띈다. 스웨덴 왕립 미술학교에서 전통적 순수미술의 기초를 다지고 실력을 인정받은 그 이기에 표현에서는 사실적이고 정제된 느낌이다. 대부분의 이미지는 자연을 기초로 한 드로잉과 사물의 관찰을 주제로 하지만 그 중 「커다란 나무」 작품에서는 대상에 대한 묘사의 행위적 의미를 넘어서 심미적 관점에서 형태를 나누고 변형, 분해하려는 시도의 인상을 준다. 본 작품을 통하여 아마도 그림을 그리고 사유하는 것의 본질과 본인의 내면과 마주하는 것에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5인회\_무제, 종이에 드라이 파스텔, 흑연, 53×62 cm, 1908년 2월 5일.  
힐마 아르 클린트 재단 제공. HaK 1261.



### 장면II. 상징의 미로—(원과 나선을 통한 메시지)

두 번째 장면은 작가가 1896년 [5인회]라는 감응과 회로를 실천하는 영적 공동체를 결성한 이후, 신지학<sup>1)</sup>과 인지학<sup>2)</sup>이라는 사유를 통해 보이지 않는 질서를 탐색하는 과정을 투영한 작품들로 주를 이룬다. 이에 대한 배경은 20세기 초 예술적·영적·정치적·과학적 체계에서 새로운 형태를 찾는 모더니스트적 탐구의 넓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당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그녀의 세상에 대한 탐색과 소용은 감각으로 포착되지 않는 무언가를 시각언어로 번역하려는 시도이자, 추상 회화로의 진입과 혼돈, 도달과정을 거쳐 기존 예술 개념과 제도적 구조로부터 의식적 탈피를 의미한다. ‘기호’와 ‘상징’으로 대변되는 점차적 구조화된 체계는 원과 나선과 같은 도형을 비롯해 직관과 영적 감응에 따라 과감한 색의 배열과 구도를 통해 언어이자 새로운 지도를 형성시킨다. 「No. 5(지금까지의 모든 작업에 대한 실마리)」, 대형 형상화 그룹III WU/장미연작」 작품에서는 파란 배경에 노랑, 파랑, 검정 원형의 이미지 속 파장, 수직과 수평 기호를 내적·외적 세계 간 보이지 않는 힘으로 개념화 및 기하학적 시각언어로 풀어냈는데, 마치 누에고치와 거미줄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들에서 우주적 질서의 실마리를 감각적으로 제시한다.

### 장면III. 보이지 않는 세계—(삶과 우주의 원리)

세 번째 장면에서는 「신전을 위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먼저 「10점의 대형 그림」 연작으로 시작한다. 작품들은 인간 생명의 시작부터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까지의 ‘인생’의 다양한 단계들을 네 가지의 흐름으로 묘사한다. 각각을 에너지와 젊음, 변화의 역동성, 성숙과 죽음(통합)의 의미를 투영하고, 원과 나선 그리고 꽃 형태의 이미지를 통해 몸의 에너지 리듬을 감각적으로 비유한다. 1907년 제작된 연작들은 거대한 크기를 통해 회화의 확장성을 도모하고, 작가의 사유가 가장 정제된 형태로 단일한 형식의 반복적 표현이 아닌, 각 도상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총체적 복합 구조로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형 그림 이후 1908년 「진화」와 1913년 「인식의 나무」 연작을 통해서서는 먼저 ‘정신과 물질’, ‘남성과 여성’, ‘빛과 어둠’이 교차된 과정을 도식화하고, ‘인식’이라는 주제를 정신의 구조 형상화로 나무의 성장과 분화로 비유하여 묘사한다. 이는 회화의 사유적 확장 개념을 지닌다. 이후 1915년 「백조」 연작에서는 백조가 가지고 있는 순수성을 흑과 백의 대립의 개념에 넣고, 분열과 결합을 남성과 여성 또는 육체와 물질 등의 차원의 원리로 재현한다. 동일 년에 제작된 「제단화」 세 점 연작은 「신전을 위한 작품들」 연작의 개념을 마무리하는 작품들로, 수직적 대칭과 기하학적 형태로 분할된 원, 나선형으로 이등분으로 칠해진 색의 스펙트럼으로 의식적 제의 공간을 연상시키는 느낌을 주면서 그의 추상회화 실험의 완결, 집약체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의 형태를 통하여 미시적이며 동시에 거시적 세계의 탐구와 감각의 다층적 경험을 의도하는 모습이다.

### 장면IV. 단순한 침묵—(색과 형상의 정제 속 의미)

네 번째 장면부터는 「원자」, 「파르시팔」, 「무제」, 「꽃과 나무를 관찰하며」 등 후기 주요 연작을 다루며, 색채와 구도의 단순화와 개념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추적한다. 후기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물질과 정신의 연결을 탐

색하는 회화적 실험의 극히 절제된 표현방식이다. 먼저 「원자」 연작은 세상을 이루는 단위에 관한 가장 원초적 탐구를 회화적 언어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작은 점과 원형이 반복되어 교차하는 화면을 구성하여 힘과 관계의 형식을 시각적으로 탐색한다. 이후 「파르시팔」 연작에서는 이전 작품과는 다른 서사적 흐름에 따라 고대 전설과 기독교의 상징체계를 신지학적 이해와 결합하여 반복과 순환적 방법으로 표현했는데, 단순화된 단색 배경에 특정 문양과 인간 간의 심장을 닮은 이미지들은 종교적 상징성과 이질적 느낌을 받게 한다. 생애 후반의 「무제」 연작은 규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으로 직관과 감각의 흐름과 형상에 대한 기록을 이미지화하는데, 어떠한 작품은 제작하는 밑그림의 세부도형을 나열한 느낌으로 작가의 계획과 의도를 설명하고 엿볼 수도 있는 작품이다. 이어서 「꽃과 나무를 관찰하며」 연작은 형과 색의 관계가 점차 약해지며 기존의 고정된 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작가의 후기 그림들은 대부분 크기가 작다. 무엇보다도 역사의 다양한 단계에서 특정 종교적 관점들을 묘사한 연작과 인간의 육체적, 밀교적 차원의 표현들은 그가 생각하는 예술 이론과 지적 영감의 정도를 인지 가능할 정도로 심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면V. 시대와의 충돌—[미래를 향한 신화],**

**장면VI. 조용한 선구자—[일기와 기록을 통한 제언]**

이어지는 두 장면은 작가의 시선과 사유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으로, 작업에 관한 자료와 사후 공개에 대한 지시 등 남겨진 기록을 중심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그의 창작이 단순히 행위에 머물지 않고 언어와 사유의 층위에서 치열하고 복합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작업이 당대 미술계로부터 어떻게 배제되었으며, 미술사의 중심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배외적 존재로 머물렀는지를 드러낸다.



**장면VII. 흔적의 직조—[작품에 대한 사유와 흔적]**

마지막 장면에서는 작가와 관련한 영화 상영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잔잔한 감동과 여운을 즐길 수 있도록 전시 후반부에 ‘감각 소환장’을 마련한 점이 눈길을 끈다. 본 전시는 작가의 예술 세계를 통해 미술 사조 간의 경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단절과 편향을 반추해보고 이를 극복할 가능성을 탐구하게 함으로써, 동시대 미술의 근본을 형성했던 잊힌 역사를 다시금 현재로 끌어오는 작업의 목적성을 지닌다. 과연 그의 재현 미술의 경계를 넘어선 추상미술의 영적 메시지와 현시의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사뭇 궁금증을 갖게 한다.

- 1 19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형성된 보통의 신앙이나 추론으로는 알 수 없는 신의 심오한 본질이나 행위에 관한 지식을 신비적인 체험이나 특별한 계시로, 알게 되는 철학적·종교적·과학적 지혜 및 지식 사상체계.
- 2 시각적 체험과는 관계없는 일종의 사고를 배양하고, 인지적 상상, 영감적 고취, 직관의 능력들을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오스트리아인 학자 루돌프 슈타이너가 설립한 철학이자 자신의 사상을 가리켜 사용한 용어.

## 어두운 바다에서 건져 올린 기억

# 2025 국제해양영화제 폐막작 <바다호랑이>

글\_박준영 예술부산 편집기자

영화의전당(대표이사 고인범)에서 6월 19일부터 나흘간 열린 '2025 국제해양영화제 KIOFF'의 폐막작으로 정윤철 감독의 <바다호랑이>가 22일 상영되었다. 이 작품은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시신 인양에 참여했던故 김관홍 잠수사와 동료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투자 유치의 난항과 코로나 팬데믹 등 제작 과정의 고난은 오히려 화려한 시각효과를 배제한 연극적 연출로 이어졌고, 그 덕분에 배우들의 연기가 더욱 또렷하게 부각되는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 조명과 연기로 유명한 바다

<바다호랑이>는 CG나 실제 수중 촬영 대신, 푸른 조명과 사운드, 배우의 내면 연기로 바닷속을 표현한다. 연극적 구성은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구체적 이미지를 배제한 채 감각적으로 바다를 체험하게 한다. 시신 인양 장면은 물속이 아닌, 배우의 숨을 참는 표정과 천천히 유평하는 몸짓으로 묘사된다. 상대 배역 없이 혼자 연기하지만, 그 몸짓과 눈빛만으로 스크린은 참혹한 현장으로 느껴지게 된다. 은은한 조명은 무대가 바닷속임을 조용히 암시하며, '보이지 않는 바다'는 묵직한 존재감으로 떠오른다.

### 플래시백을 통해 뒤늦게 드러나는 진실

영화는 플래시백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이야기를 풀어낸다.故 김관홍을 모티브로 한

주인공 나경수(배우 이지훈)는 해외에서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뒤로한 채, 동료 잠수사들이 있는 참사 현장으로 향한다. 하지만 영화는 친절하게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풀어내지 않는다. 관객이 사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알기도 전에, 장면은 곧바로 공판 장면으로 전환된다. 이후 재판 과정을 따라가며, 과거 시점에서 벌어진 시신 인양 작업과 유가족과의 얽힘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현재와 과거의 시점을 넘나드는 구성은 관객의 추론을 자극하고,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고자 하는 몰입과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특히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교차되는 과거와 현재의 시점은 배우들의 표정과 감정선에서 확연히 다른 음영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감정의 대비는 영화 전체의 흐름에 강한 인상을 남기며, 관객에게 더 깊은 정서적 여운을 전한다.

### 심해처럼 깊은 연기

배우 이지훈은 참사 현장에서 고통에 사로잡힌 잠수사 나경수를 섬세하고도 깊이 있게 그려낸다. 그는 고요한 무대 위에서 실제 바다보다 더 깊은 마음의 파동을 표현한다. 손성호 또한 류창대 역을 소화하며 동료 잠수사로서의 책임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내면의 갈등을 섬세하게 드러내며, 인물 간의 관계에 긴장감을 부여한다. 화면에 실제 수중 장면은 등장하지 않지만, 사운드와 조명의 절묘한 조합이 심해에 둘러싸인 듯한 공간감을 효과적으로 구현한



다. 물소리와 푸른빛은 관객을 '익숙하지만 겪어 본 적 없는 물속 한가운데'로 이끌며, 마치 마이크 하나 없는 연극 무대처럼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는 단순한 시청각 효과를 넘어, 영화의 정서를 이끄는 중요한 미장센으로 작동한다.

### 남겨진 자들의 이야기

영화는 국가, 법정, 언론과 같은 거대 담론보다, 그 안에 존재하는 개인의 고통에 집중한다. 아이들의 시신을 마주한 잠수사의 정신적 고통, 그 이후에도 벗어날 수 없는 트라우마, 잠수병으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 등은 관객의 마음에 파문처럼 번진다. 영화는 세월호를 정치적 담론으로 소비하지 않고, 절제된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로 실화의 비극을 담담히 전한다. 클라이맥스로 이어지는 장면은, 오히려 유가족이 잠수사들을 위로하는 순간이다. 고통을 품은 이들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장면은 깊은 울림을 남긴다. 영화 속 주인공 나경수는 가족의 곁으로 무사히 돌아가지만, 현실 속故 김관홍 잠수사는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영화는 이 극적인 대조를 통해,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과 그것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조용히 질문을 던진다.

### 마무리하며

'바다호랑이'는故 김관홍 잠수사의 별명이었다. 영화 <바다호랑이>는 그날의 바다를 '연기와 조명, 사운드'로 되살려낸다. 장대한 바다 풍경도, 화려한 CG도 없지만, 배우들의 내밀한 눈빛과 절제된 움직임이야말로 이 영화가 그려낸 가장 깊은 바다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슬픔을, 차분한 호흡으로 끌어올려 관객의 마음을 천천히 물들인다. 기억을 아프지 않게 꺼내어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이 영화는, 잔잔하지만 단단한 연출로 비극의 여운을 진솔하게 품어낸다. 그것이 바로 <바다호랑이>가 가진 진정한 힘이다.



건축과 서예 XIV

# 충절의 역사와 서체가 만나는 공간 반송 삼절사



반송 삼절사\_부산시 문화유산자료 ©구주환 사진

## 동래 임진 선열의 충절 본거지, 반송과 철마

조선 숙종 연간 한성판윤을 역임한 염현(鹽軒) 임상원(任相元(1638~1697))은 「별전청서(別典廳序)」에서 “동래는 고을 사람의 이름이 녹권에 실려 있는 사람이 66인이나 되니 일주(州)의 수치를 씻고 먼 지역까지 민속을 풍미하였다”라고 기록했다.

반송 지역만 보아도 임란공신 문덕겸·문세휘의 충의를 기리는 사당인 상의사(尙義祠), 임진의병으로 선무원종공신록에 등재된 포암 구영취의 기적비와 단소, 그리고 윗 반송에 지역 최대 규모의 사우인 삼절사가 있다. 이어 기장 철마 일대에는 오흥(吳興)·오춘수(吳春壽)의 사당인 구산단(龜山壇(일명 의용당義勇堂))과 임진 의병장인 김일개·김일덕을 모신 의열사(義烈祠), 상현당(尙賢堂), 영모재(永募齋) 등 다수의 선열 사당과 단소가 산재한다.

반송과 철마는 남원 양씨, 남평 문씨, 해주 오씨, 김해 김씨, 창원 구씨 등의 유서 깊은 세거지로, 가문마다 많은 인물들이 선무원종공신녹권에 이름을 올리며 동래 충절의 역사를 풍성하게 드높였다.

## 관아 주도로 세운 문중 사당, 삼절사

반송(盤松) 삼절사(三節祠)는 임진전란 때 순절한 양지(梁誌)·양조한(梁朝漢)·양통한(梁通漢) 등 남원 양씨 일문 세 분의 위패를 봉안하고 향사를 지내는 곳이다. 이들 중 양지(1553~1592)는 적성현감을 거쳐 삭녕군수로 부임하여 임진왜란 때 성을 지키다 순절하여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양조한(1555~1592)은 동래향교 유생으로, 동래향교에 봉안된 성현들의 위패를 동래읍성 내의 정원루(靖遠樓)에 봉안한 후 순절하여 호조 정랑에 증직되었다. 양통한(1559~?)은 양조한의 아우로서 경주의 문천회맹(蚊川會盟), 팔공산회맹(八公山會盟)과 함께 창녕 화왕산성(火旺山城)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순절하였으며, 이후 호조 좌랑에 증직되었다.

반송 삼절사는 1839년(헌종 5) 동래부사 이명적(李明迪)이 건립하였다. 약 400평 경역에 사당 1동, 재실 1동을 건립하였고, 동래부 사림의 제의로 삼절사(三節祠)라고 칭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840년(헌종 6) 사림의 요청으로 경상감사가 장계를 올려 일문(門)삼절(三節)의 합사를 조정으로부터 윤희 받았다. 제수 등 제반 비용은 동래부에서 제공하였고, 관리와 제향은 향내 유림이 주관하였다. 같은 해 사당의 강당인 세한당을 증축하였는데, 이때 목재 일체를 경상좌수영 금양송추(禁養松楸(산소에 심는 나무 등 제벌을 금지한 나무))를 사용하도록 허가받아 완공하였다. 1986년 5월 29일 당시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제1호로 지정된 이래 수차례의 정화·보수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 동래부사 정현덕의 글씨, 세한당

1867년(고종 4) 흥선대원군의 측근이자 동래부사로 부임한 정현덕(鄭顯德)은 부임 이듬해인

1868년 반송 삼절사 강당인 '세한당(歲寒堂)'의 현판을 직접 썼다. 정현덕은 통상 2년 6개월의 임기를

## | 기획연재

훨씬 뛰어넘어 대일본 외교 관계의 특수성으로 무려 7년 동안 최장기로 동래부사를 역임하며, 동래읍성 수축, 동래객사 중건, 금정산성 동·서문 복원 등을 추진한 인물이다.

세한(歲寒)은 설 앞뒤의 가장 추운 겨울을 의미하며, 세한삼우인 송(松)·죽(竹)·매(梅)는 절개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세한당은 인내와 충절이라는 유교적 가치를 내재한 명칭이다.

현재 정현덕의 '세한당' 현판은 기념관으로 이전되어 보존되고 있다.



세한당\_동래부사 정현덕, 1868년



세한당\_1868년 정현덕 현판의 번각본

### 동래 유림의 거목, 동계 박명찬

반송 삼절사의 모든 현판과 주련은 동래 출신의 대표적인 서예가 동계(東溪) 박명찬(林明讚, 1914-1998)의 작품이다. 박명찬은 충렬사와 안락서원의 원장 및 이사장, 동래 향교의 우두머리 격인 전교(典校)를 역임하며 동래 유림을 대표하는 인물로 활동했다. 1928년 동래제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박명찬은 흠제(歆齋) 노영경(盧泳敬)에게 경전과 한학을 수학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는 충청(重慶)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홍보산(洪寶山)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경찰서 고등계에 수차례 불려가 고초를 겪기도 했다. 1971년 동래 서예원을 개원한 이후 박명찬은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 한중일 서예문화교류협회 이사, 부산서우회 회장, 부산서예인협회 고문 등을 역임하며 지역 서예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동래 유림으로는 특이하게 동래기영회에도 활동했으며, 1987년 동래 충렬사, 안락서원 원장, 1987년 반송 삼절사 산장, 1991년 동래 향교 전교로 취임하였다. 한학적 기반 위에 문장과 서예에 모두 능했던 그는 이 시기 삼절사의 모든 현판을 직접 썼던 것으로 파악된다.

### 동계 박명찬의 필적, 부산의 역사 현장에 새겨지다.

동계 박명찬의 글씨는 부산 전역 우리 역사 현장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부산대학교 신정문 현판(1980), 어린이대공원, 동래여고 일신관 석각문,

동명대학교 동명 강석진 동상명서, 대명여고 현판 석각문, 부산해양대학교는 물론이고,

역사적 장소인 자성대 상량문, 송공단 비문(1973), 『충렬사지』 제자(題字)(1978),

동래부 동헌 동익랑 현판(1981), 동래 충렬사 경내 별전 24공신 공적비 비문(1988)과

총렬사 서의당 현판, 당감동 어모장군당 비문(1992)이 그의 글씨이다. 또한 1993년 동래 문화 유적지 표석문 [남문 터·군관청 터·서문 터·망미루 터·동문 터·야문 터·동래부객사 터·이섭교비 터·만년대 터·삼성대 터·독진대아문 터·서천교 터·전차 동래역 터·농수산 터·대낫들이 터·만세거리 터] 등과 정과정 표적문 등 다양한 역사적 현장에 그의 손끝이 닿았다. 그의 필체는 부산 전역의 주요 교육 공간, 사적지, 관공서 건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부산의 역사적 서체로 자리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가 남긴 작품들은 공간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서사적으로 연결하는 기록체로 평가할 만하다.



모현관\_동계 박명찬



반송재\_동계 박명찬



상절문\_동계 박명찬

### 반송 삼절사의 명성을 지켜가는 후손

반송 삼절사의 관리·운영은 동래 향교 전교이자 남원 양씨 양조한의 후손인 거송<sup>巨松</sup> 양연모<sup>梁鍊謨</sup>의 책임하에 있다. 비록 부산 총렬사만큼 규모나 위세는 크지 않지만, 반송 삼절사처럼 임진전란 관련 고문서를 충실히 보존하는 사례는 드물다. 1737년 정랑공 양조한 추증 교지와 1758년 좌랑공 양통한 추증 교지, 1796년 충민공 양지 증시 교지, 『임진순절<sup>壬辰殉節</sup> 제인<sup>諸人</sup> 사적록<sup>事績錄</sup>』, 삼절사 『지알록<sup>祇諫錄</sup>』과 『고왕록<sup>考往錄</sup>』, 『청조문<sup>請助文</sup>』, 『사직안<sup>祠直案</sup>』 등을 비롯하여 반송 삼절사가 건립된 1839년 전후부터 20세기까지의 기록을 누락 없이 보관하고 있어, 부산 향반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처럼 약 21건의 귀중한 고문서들은 2022년 11월 30일 부산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어 문헌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반송 삼절사는 임진전란 순절 선열인 '삼공신<sup>三功臣</sup>'의 넋을 기리고 뜻을 계승하기 위해 약 300년간 봄·가을 향사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호국정신과 사회윤리를 상징하는 제의 전통은, 경역 전체를 문화유산으로 지정·보존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향사 유지뿐 아니라 고문서의 안전한 보존과 그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내부 자료의 전시 공간 확보, 디지털 아카이빙, 후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구축 등 가치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글\_이현주 부산시 국가유산위원회

## 활력 잃어가는 부산...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 캐기 사업’에 사활 걸어보자”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확 바꿉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가 가치를 생산, 수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인터넷<sup>Internet</sup>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 전반적인 구조와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혁신의 결과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인터넷 때문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영상통화 등으로 즉시 소통이 가능해졌고, 지구촌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였습니다. 인터넷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 커뮤니케이션 통로<sup>通路</sup>’가 되었습니다. 아마존과 쿠팡,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구매가 가능

한 전자상거래(e-Commerce)가 가능해지고, 금융거래와 증권, 암호화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의 온라인화가 이뤄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원격근무와 프리랜서 플랫폼이 활성화하는 등 경제활동의 디지털화로 연결되었고요. 유튜브와 온라인 강의 등 저비용과 접근이 쉬운 교육환경이 만들어졌고, 인공지능(AI) 튜터, 자동번역기 등 맞춤형 학습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농어촌, 저개발국가의 주민도 최고 수준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과 학습의 혁신도 뒤따랐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게임, 음악 등 온라인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블로그와 웹툰, 유튜브 등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도 쏟아져 나옵니다. 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유튜브

---

와 스트리머, 크리에이터<sup>Creator</sup> 등 새로운 직업군이 출현하는 등 문화생활과 오락의 확장도 이뤄졌습니다. 거기다 온라인 청원과 여론 형성, 시민운동 등 참여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민원24'와 같은 정부·공공기관의 디지털 업무 전환과 재난 정보, 긴급 알림 등 사회안전망 역할도 인터넷이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은 단순한 통신 도구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핵심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보, 경제, 교육,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삶을 더 빠르고, 더 넓으며,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현대인에게 인터넷의 효용 가치는 도저히 수치로는 따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은 한 사람에 의해 단번에 개발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나라와 수많은 과학자가 협력하고 발전시킨 결과물입니다. 인터넷은 1960년대 후반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ARPA, 현재 DARPA)이 군사적 목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ARPANET 프로젝트'를 착수했습니다. ARPANET는 분산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했으며, 패킷(데이터 조각) 교환 기술을 이용해 여러 컴퓨터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방식은 메시지를 패킷으로 나누어 전송하고, 각 패킷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규칙(언어)인 TCP/IP(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핵심 기술이 개발되면서 '거대한 네트워크' 개념을 현실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90년 영국 컴퓨터 과학자인 팀 버너스리<sup>Tim Berners-Lee</sup>가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HTML, 주소 체계인 URL, 연결 규칙인 HTTP를 고안한 뒤 '월드 와이드 웹(www)'을 개발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대중화도

이뤄졌습니다. 인터넷은 TCP/IP를 이용,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그야말로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빌 게이츠<sup>Bill Gates</sup>와 폴 앨런<sup>Paul Allen</sup>이 공동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sup>Microsoft</sup>사가, 스티브 잡스<sup>Steve Jobs</sup>와 스티브 워즈니악<sup>Stev Wozniak</sup>, 로널드 웨인<sup>Ronald Wayne</sup>이 공동 창업한 애플<sup>Apple</sup>사도, 래리 페이지<sup>Larry Page</sup>와 세르게이 브린<sup>Sergey Brin</sup>이 공동 창업한 구글<sup>Google</sup>사라는 거대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세상에 얼굴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전 세계에 수많은 고용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 테크<sup>Big Tech</sup> 기업', '테크 자이언트<sup>Tech Giants</sup> 기업', '플랫폼 기업<sup>Platform Company</sup>'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똑똑한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나 이들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등 창업자들의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그들은 골방 같은 작은 사무실에서 제품 개발에 몰두하는 등 매우 열악한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컴퓨터와 씨름하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들이 처음 컴퓨터에 빠졌을 때 가슴 깊이 간직했던 꿈은 분명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죠. 고교 시절부터 컴퓨터 세계에 홀라당 빠진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의 비전은 소박하기 그지없는 "모든 가정과 책상 위에 컴퓨터를 둔다"였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 운영체제인 MS-DOS와 Windows 개발에 집중했고, IBM PC와의 계약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56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등진 천재 혁신가 스티브 잡스의 꿈도 "개인용 컴퓨터를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였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 연구를 거듭한

결과 애플I과 애플II 컴퓨터 제작에 성공했고, 명실상부한 IT 기업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죠. 회사 내부 갈등 때문에 애플에서 쫓겨나기도 했던 스티브 잡스는 굴하지 않고 기술과 예술의 융합, 즉 경험 중심의 제품으로 스마트폰의 시작인 아이폰iPhone과 모바일 앱 생태계를 구축한 앱 스토어App Store, 태블릿 시장의 개척을 알린 아이패드iPad 등을 계속 출시했습니다. 이들 제품의 탁월한 기능 덕분에 현대인들의 삶의 질은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는 '상전벽해桑田碧海 수준'으로 확 바뀌었고요.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1998년 구글을 창업할 때 제시한 비전도 단순명료합니다. "전 세계의 정보를 정리하여 누구나 접근하고 유용하게 만들자"가 그것인데, 이 비전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래리 페이지는 "기술은 사람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10배(10x) 더 나은 것을 만들어야 진정한 혁신이다"라고, 세르게이 브린은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인류 전체의 지식과 가능성을 넓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각각 설파했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정보 접근의 평등화와 사용자 중심의 유용성에 초점을 둔, 가장 기술적이면서도 인류적인 목표를 지향한 것입니다. 세계가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하나로 묶여 있기에 "내 역량으로 세상을 멋지게 바꿔 보겠다"라는 꿈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도전의 무대'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보겠다"라는 웅대한 꿈을 가진 제2, 제3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출현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말입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현주소, 특히 부산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부산에는 반듯한 일자리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

들은 부산 살기를 포기하고 부나방처럼 서울로 서울로 달려가는 '탈屛 부산 행렬'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 노인들만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부산시민 입에서 "부산이 '노인과 바다'만 있는 도시로 쪼그라들었다"라는 탄식이 터져 나올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필자는 『예술부산』의 지면을 통해 '통큰 아이디어'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항구도시에 거주하는 부산시민의 기질인 개방성을 적극 활용, 부산을 세계 1등 상품의 마중물 역할을 할 '아이디어의 보고寶庫'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발칙한 발상'은 개인적인 처절한 경험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힙니다. 필자는 수년 전 우연한 기회에 울산의 모 벤처업체와 인연이 닿아 투자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국내 모 방송사가 주최한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세계 1등 상품 제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덕분에 중소기업진흥원으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창업 및 운전자금 지원까지 받았습니니다.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국내 대기업 납품 결정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최근에 폐업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제품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금을 대줄 투자자를 만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30여 나라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였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이 이뤄지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음에도 제품 개발비용 10억 원을 끝내 확보하지 못해 도산하고 만 것입니다. 필자도 업체 대표와 함께 백방으로 투자자를 찾기 위해 뛰었지만 '투자금 확보의 벽'은 높고 높았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2025년 3월 결국 회사는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빚만 잔뜩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지금은 대리운전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좋은 투자자를 만나 그 업체의 상품이 끝내 대박을 터뜨렸다

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회사 대표는 비즈니스 항공 권으로 거래처를 늘리기 위해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을 누비고 있겠죠. 또한 고용 창출로 이어져 울산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인간의 상상력은 세상을 대변혁의 길로 이끕니다. 인간의 무궁무진한 그 상상력과 염원을 누가, 어떤 식으로 야무지게 붙잡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됩니다. 1983년 11월, 28세의 스티브 잡스가 한국을 방문,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73세 이병철 회장을 만났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꿈'과 '상상력'이 응집된 태블릿에 들어갈 메모리칩 디스플레이 공급업체를 수소문하던 중이었고, 이병철 회장은 메모리칩 생산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날의 만남이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스티브 잡스의 "개인용 컴퓨터를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소박한 꿈이 인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부산시민 중에서도 스티브 잡스와 같은 꿈과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 꿈과 상상력, 즉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방치된다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개꿈'으로 남겨질 뿐입니다. 그러나 '구슬'을 깨면 '보배'가 되는 법. 부산시민의 꿈과 상상력, 즉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부산만이 가지는 엄청난 잠재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아이디어 하나가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시장을 석권할 '부산발 아이디어 창고'를 가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주창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추진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거나 수많은 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두뇌 경쟁'이고 '시스템 경

쟁'이기 때문입니다. 시장市長부터 생각을 바꾸고, 부산시 공무원들도 '구태 행정의 틀'에서 벗어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 기획 부서 안에 '시민 아이디어 관리팀'을 신설,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시민의 꿈과 상상력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부산시가 지원을 해주는 '특별 민간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이든지 아이디어 발굴 및 관리를 부산시가 책임질 때 빛이 발할 것입니다. 공신력公信力이 보장되고 지속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야 합니다. 우수상 10만원, 대상 100만 원 수준이 아닌, 매출 대비 적정비율의 보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죠. 인센티브 지급률이 0.5%로 책정되었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해당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생산되어 100억 원 매출 발생 시는 5천만 원을, 1조 원 매출 발생 시에는 무려 5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權知的財産權으로 간주, 예술작품의 저작권료著作權料 지급 방식처럼 매출이 있는 한 지속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심지어는 자식에게까지 대물림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부산과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었으니 그 정도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파격적인 보상책이 뒤따른다면 탁월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해당 부서나 기구로 쏟아질 것입니다. 이 제도가 뿌리내린다면 부산시민을 '세계 1등 창의創意 시민'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2026년,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참신하고 기발하며 발칙한 아이디어를 금쪽같이 여기는 부산시장감 어디 없을까요.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부산 청년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할 그런 부산시장감 어디 없나요?

글\_심수화 언론인 칼럼니스트

## 제29회 한국해양문학제

### 8. 8.(금)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문인협회(회장 박해숙)의 '한국해양문학제'가 8월 8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제30회 한국해양문학 심포지엄(오후 1시)과 2025 한국해양문학 특강(오후 3시), 제29회 한국해양문학제 개막식 및 시상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강에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김강식 교수가 '부산 해양성 토피아보고 이어가기'를 주제로 강연하며, 심포지엄은 '바다의 언어와 노래의 몸'이라는 주제로 부산가톨릭대학교 안수현 교수(발제자), 부산대학교 임종찬 명예교수(좌장), 손무경(시조시인), 차달숙(시인)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개막식과 시상식은 오후 4시 30분부터다. 문의 051)632-5888



## 기억해야 할 미래 II [그날의 함성, 영웅] 개최

### 8. 31.(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국악협회(회장 강명옥)가 주최·주관하고 부산문화재단이 후원하는 <기억해야 할 미래 II [그날의 함성, 영웅]>이 8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3·1 만세운동에 참가한 민중들, 6·25전쟁 참전군인, 강제로 징용되었던 피해자들, 그리고 시대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낸 수많은 평범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무대로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1.그날의 함성\_아리랑 구음 시나위(구성 오상훈 정선희 정효선) 2.당신을 기억합니다\_영웅을 위하여(작곡 전우실) 3.그날을 기억하며\_순국의 혼(작곡 김백전) 4.기억해야 할 미래\_아리랑과 애국가(편곡 박위철 변재벽)로 구성됐다. 공연에는 부산국악협회 국악관현악단 [와락심포니](지휘 김경수)가 협연한다. 문의 051)644-5211

## 2025 점심버스킹 in Madang 부산오페라앙상블 <B.O.E's Playlist>

### 2025. 7월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무대





### 한국의 미 이영길 파스텔전

7. 21.(월). ~ 27.(일)  
부산진구청 백양홀

파스텔이라는 매체를 통해 성실한 사생 작업과 끊임없는 창작을 이어가며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해 온 이영길의 여덟 번째 파스텔 개인전이 7월 21일부터 일주일간 부산진구청 백양홀에서 열렸다. 그는 자연을 삶의 터전이자 창작의 원천으로 여겨 흙담을 모티프로 한 구상 풍경을 재구성한 작품을 선보였다. 황금색과 파스텔 기와 문양이 조화를 이루며, 빛의 대비를 통해 깊이를 더한 이번 전시는 작가의 성찰적 태도와 전통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을 담고 있다. 파스텔의 부드러운 색감은 감상자에게 따스한 위로를 전하며, 한국적 미감을 토대로 새로운 조형 언어를 제시한다.

문의 010-3879-3803



### 야나ček 오페라 한국초연 영리한 작은 여우

8. 22.(금) 오후 2시, 7시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체코 국민 작곡가 레오시 야나ček의 가장 아름답고 사랑받는 작품이 한국에서 초연으로 진행된다. 오페라 <영리한 작은 여우>는 자연과 생명의 순환, 삶과 죽음의 여정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되묻는 따뜻하고도 정교한 철학적 의미를 담은 음악극이다. 공연은 우화를 빚대어 삶의 본질을 꿰뚫는 철학동화로서, 희귀 레퍼토리의 무대화과 최고의 연출, 지휘자, 성악가, 배우들의 합으로 독보적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한 여우가 보여주는 삶의 용기와 여정을 통해 삶에 대한 원초적 질문을 던지고 음악이 주는 치유의 시간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문의 051)513-1009



### 2025 D.FESTA 소극장축제 in 부산

8. 15.(금) ~ 24.(일)  
공간소극장, 나다소극장,  
하늘바람소극장

<2025 D.FESTA 소극장축제 in 부산>은 공연 활성화 및 소극장의 건강한 공연 환경을 위해 기획된 대항로 페스티벌로 18회째를 맞이했다. 서울과 각 지역에서 격년으로 교차 진행되며, 올해는 부산지역 공간, 나다, 하늘바람 3곳의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아이컨택]을 비롯한 각 지역을 대표하는 8개의 극단이 참여하고, 작품으로 <월지문 소나타>, <적의 화장법>, <닥치고 전진> 등 개성 강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본 행사를 통해 소극장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재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문의 051)611-8518,  
02)741-4188



**Unseen, Yet Lit 빛 속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 존재와 부재 사이의 긴장**

7. 9.(수) ~ 8. 30.(토)  
갤러리 서린 스페이스

본 전시는 철학자 앙리 베르그손의 사유에 기반하여, '빛'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뒤얽혀 있는지를 설명한다. 참여작가 백나원, 진풍, 차주희 3인은 '빛'과 '투명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의 경험과 의식의 복잡성을 탐구하고 시각적 경험으로 풀어낸다. 작품들은 우리의 기억이 빛을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성찰을 제안한다. 관객에게는 이미지들 속 숨겨진 의미를 찾고, 지각과 기억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투영시킨다.

문의 051)742-7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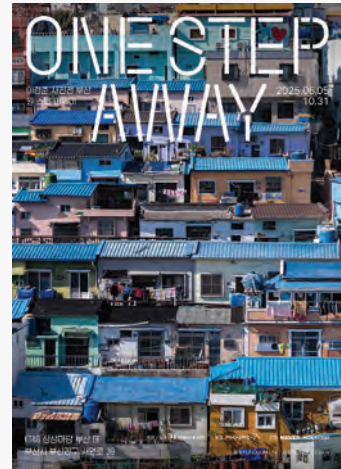


**열 개의 눈**

5. 3.(토) ~ 9. 7.(일)  
부산현대미술관

'열 개의 눈'은 미술관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로 선보이는 국제 기획전이다. 전시는 우리의 감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신체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탐구하며 감각의 위계를 해체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감각적 존재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장으로 꾸러진다. 형식적인 배리어프리 넘어 실질적 접근성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미술관이란 장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그리고 이곳이 어떠한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문의 051)220-7355



**이경준 사진전  
부산 : 원 스텝 어웨이**

6. 5.(목) ~ 10. 31.(금)  
KT&G 상상마당 부산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이미지는 어떠한 모습일까.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본 도시의 일상을 통해, 일상 속 심표를 건넌 이경준 작가의 첫 국내 투어 전시가 KT&G 상상마당 부산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서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뉴욕 시리즈를 중심으로, 작가 활동 초기에 담아낸 부산의 풍경과 2024년 파리에서 완성한 신작까지 1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도시의 기하학적 구도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 그 속을 유영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기록한 그의 작품은 도시의 일상을 자신만의 고유한 시선으로 담아낸다.

문의 070-8893-0892-5



**고독의 경지** 박정선 / 세종출판사

‘진정한 예술은 창조적인 예술가의 견딜 수 없는 충동에서 비롯된다.’ 아인슈타인의 이 말처럼, 박정선 평론가는 고독을 예술의 본질이자 창조의 뿌리로 바라본다. 이 책은 고독이라는 감정이 예술가의 내면에서 어떻게 사유되고 표현되는지를 탐구한 평론집이다. 한정미, 명인숙, 신명자, 이견숙, 권갑숙 등 여러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며, 각기 다른 문체와 시선 속에서 고독이 어떻게 감각적으로 형상화되는지를 짚어낸다. 관조와 침묵, 내면의 울림으로 채워진 이 책은, 독자에게도 스스로 고독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생각의 싹표를 건넨다. 저자 박정선은 2023년 제66회 ‘부산시 문화상’ 문학 부문 수상자다.



**장미꽃 옆 강물** 김원용 / 책퍼냄열린시

그리운 이를 향한 사랑과 회한이 잔잔히 흐르는 시집이다. 시인은 담백하고 진솔한 언어로, 내면 깊숙한 감정을 조심스럽게 펼쳐낸다. ‘반짝이는 실눈/불우물은 분홍빛으로 타고/짧은 뒷머리로/도통한 입술로 중얼거리는 그대/나, 그대를 다시 볼 수 있으려나’(‘나, 다시 그대를 볼 수 있으려나’ 부분) 구체적인 이미지로 되살려낸 사랑의 기억은 잊히지 않는 존재의 증거가 된다. 시집은 ‘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라는 단순한 감정을 다양한 시적 장면 속에서 다층적으로 포착해 낸다. 자연이나 추상적인 존재에 빚대어 그리움을 조형하며, 조용히 다가오는 시편들은 독자에게도 각자의 마음속 그리운 얼굴을 떠올리게 만든다.



**말의 씨앗** 글 손수자 · 그림 김천정 / 고래책방

아이들을 가르쳐 온 교육자 출신 글작가와, 이탈리아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그림작가가 만나 탄생한 따뜻한 그림동화다. 글작가 손수자는 ‘돌이켜보면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라고 머리말에서 회고하며, 교사로서의 진심을 작품에 담아냈다. 좋은 말만 건네고 싶었지만, 때로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다수의 아이들을 마주하다 보면 원치 않은 미운 말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 말은 곧 작가 자신의 마음도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 그렇게 태어난 이야기가 바로 이 책, 『말의 씨앗』이다. 작가는 이 동화를 통해, 모든 독자가 따뜻한 말의 힘을 되새기며 위로와 기쁨을 느끼기를 바라고 있다.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 성 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부산의 숨은 명소 **다대포**(아미산 전망대)

부산의 서쪽 끝에 위치한 다대포해수욕장은 드넓은 백사장과 갈대밭, 그리고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합니다. 아미산 전망대에서는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내려다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바다와 강이 만나는 자연의 콜라보, 부산

강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갈매기와 철새가 함께 나는 곳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기다린 끝에 맞이하게 되는

해와 강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낙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대포만의 풍경을 연출하죠.

부산이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대포라는 작품

*부산을 사랑합니다*

※ '부산을 사랑합니다' 광고는 BNK부산은행 직원 및 직원가족으로 구성된 홍보모델 'B-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촬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정가 5,000원



9 771976 974008

ISSN 1976-9741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